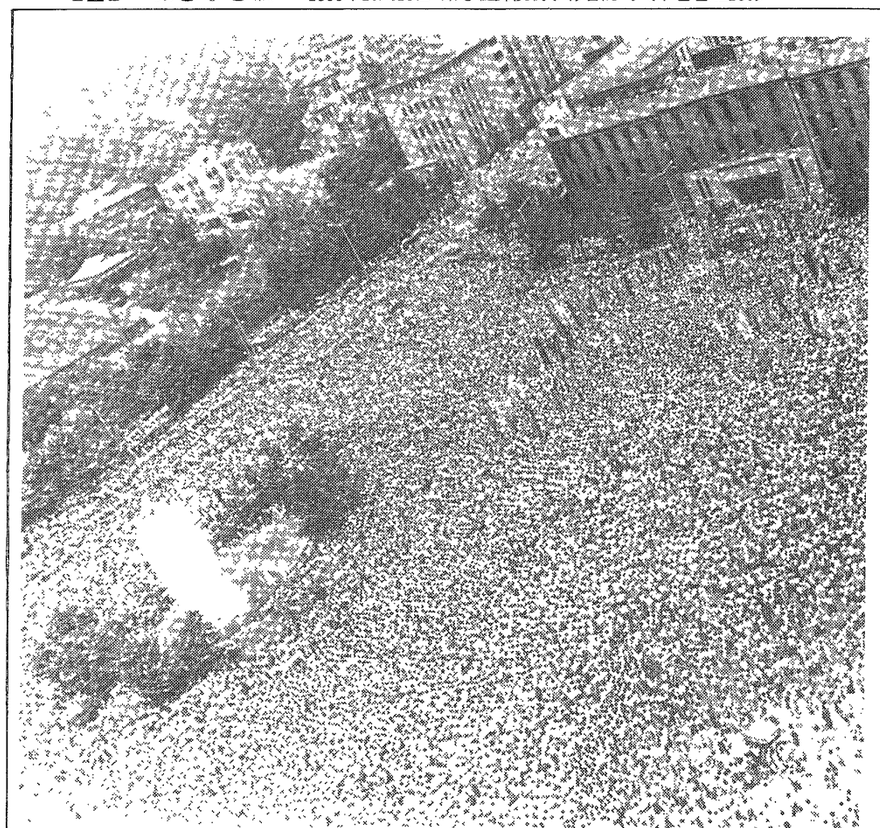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6月, 참된 民主化를 갈망하는 民衆들의 힘찬 의지가 「6·10」「6·18」「6·26」으로 이어져 이땅 전역에 메아리쳤다。그동안 민주화 세력에 대해 「容共」「左傾」을 내세워 탄압만을 일삼아 오던 現政權은 民衆의 뜨거운 민주화투쟁의지에 당황, 「6·29선언」을 통해 위기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내세운 8개항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있다。이번 「6월투쟁」의 선도적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학생층으로서 本校도 서울·慶州양캠퍼스에서 민주화투쟁에 일익을 담당하였다。사진은 7월9일 李韓烈군 장례식때 시청앞에 모인 애도인파。<관련기사 11면> (사진 : 本社 지희현 記者)

總學보궐선거 내달 15·16일 치뤄

오는 29일 입후보자 등록마감

지난 6월15일 구국학생총화회의에서 제19대 총학생회장·부회장이 탄핵됨에 따라 학생회칙 67조에 의한 새로운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내달 15~16일 양일간 실시된다。

지난 13일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태균·총학생회장권한대행·무역4)에 따른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등록=8月27~29日(오후5시限) ▲선거공고=9月1日 ▲후보자 인터뷰=9月5日(중앙 선관위 실·오후1시) ▲선거유세=9月11일~15日 ▲투표=9月15~16日 ▲개표=17日 오전10시 ▲당선자 공고=18日 오전10시(예정) ▲취임식=10月1日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총학과의 임기내 사업계승 문제 등이 제반문제점으로 대두, 단대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위원 총회에서 중앙위원 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萬海詩碑 건립

9월초 본관측에

우리들의 위대한 독립지사이자 시인이며 동국정신의 지주였던 萬海 韓龍雲선생의 시비가 오는9월초 본관 좌측부지에 세워진다。

이 시비는 4m70cm의 화강암에다 「萬海詩碑」라 새겨지며 그 뒷면엔 취지문과 그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이 원문을 컴퓨터로 고쳐서 새겨지는데 글은 서예가 一中 金思燁씨가 쓰게된다。

이번 만해시비 건립에 따라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수감중에 썼던 「一日不讀書口中生荊」이란 필적도 탁본되어 이전될 예정이다。

한편 東岳 (李宏勳) 선생의 詩碑는 장소를 재검토하고있다。

"文敎5원칙 구애받지 말라"

등국발전간담회 학원民主化등 현안문제 논의

「학원민주화와 동국발전을 위한 실·처장및 학생대표자 간담회」가 지난18일 오전10시 洪起三기획조정실장, 朴先槿교무처장, 徐周吉학생처장, 宋錫球총무처장, 김태균 (무역·4) 총학생회장권한대행등 각 실처장및 학교실무관계자, 각학생기구 대표등이 참석한가운데 本館 학처장회의실에서 열렸다。

학생회의 합법성과 자율권 보장, 학원내 비민주적 요소철폐를 학생들이 제시한 13개조항의 학내외 제반문제점들에 대하여 학교당국자에 따르면 『기교는 이의 근본을 위한 대책을 밝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측은 『문교5원칙의 철폐를 요구하지만 말고 여러분이 논의적으로 회칙을 만들어 결정하면 학교측은 이를 인정할 것이며 학생회 예산지출권 또한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학교측은 학생들의 정치참여금지를 규정한 학원법령이 고쳐지는대로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현행 총장중심의 학교행정을 과단위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며 평교수협의회 구성등은 교수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학교측은 기숙사 문제및 써클활동 자율화도 검토, 92년까지 1천명 수용능력을 갖춘 기숙사를 확충, 계사(도봉구 소재)택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관계당국에 요청, 현재 추진중이라고 밝혔으며, 써클활동 연합회를 인정하고 써클지도교수제를 자율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財團의 실질화, 졸업정원제 완전철폐, 학생대표의 학사행정참여, 학생복지향상, 교원재임용 조정, 法大독립및 예대승격, 학생회관 건립, 부지확보, 학교발전 중장기계획등 8개항에 대한 문제점은 25일 오전10시 간담회를 속개, 토의하기로 했다。

石田李丙疇교수 정년퇴임 기념강연

石田 李丙疇 (국문과)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강연회가 지난 6월23일 오후3시 一山館 三十주년 이란 주제로 同科 교수 학생제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 (L301) 에서 열렸다。

학군단 이전

공대3원흥관으로

本校 학생군사교육단 사무실이 지난11일 공대옆 제3별관으로 이전되었다。

후기大學院 학위수여식

오는29일 박사21·석사1백85명

「86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수여식」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거행된다。

이번 후기 학위수여자는 박사학위 21명, 대학원석사 49명, 행정대학원석사 54명, 경영대학원석사 36명, 교육대학원석사 46명등 모두 2백6명이 되고있는데 박사학위 취득자는 다음과 같다。

▲徐周吉 (불교학) ▲曺勇吉 (〃) ▲金明姬 (국문학) ▲蘇洙萬 (영문학) ▲辛虎雄 (사학) ▲安圭哲 (교육학) ▲宋尙燁 (〃) ▲曺永喆 (행정학) ▲宋成柱 (경제학) ▲洪性樂 (불교학) ▲朴東燦 (경영학) ▲朴文奎 (화학) ▲吳順九 (〃) ▲吳中燁 (농학) ▲鄭龍文 (임학) ▲鄭玩鎬 (응용생물학) ▲李浩源 (〃) ▲金東萬 (〃) ▲金鉉九 (식품가공학) ▲吳英珍 (일문학과) ▲盧姬吉 (〃) ▲金明姬 (국문학) ▲曺勇吉 (불교학) ▲蘇洙萬 (영문학) ▲辛虎雄 (사학) ▲安圭哲 (교육학) ▲宋尙燁 (〃) ▲曺永喆 (행정학) ▲宋成柱 (경제학) ▲洪性樂 (불교학) ▲朴東燦 (경영학) ▲朴文奎 (화학) ▲吳順九 (〃) ▲吳中燁 (농학) ▲鄭龍文 (임학) ▲鄭玩鎬 (응용생물학) ▲李浩源 (〃) ▲金東萬 (〃) ▲金鉉九 (식품가공학) ▲吳英珍 (일문학과) ▲盧姬吉 (〃) ▲金明姬 (국문학) ▲曺勇吉 (불교학) ▲蘇洙萬 (영문학)

후4시30분 총장실에서 吳仁甲재단이사장, 각학처장, 주한 태국대사 추트 하스미트씨등이 참석한가운데 태국어과 개설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泰 출라브흔 공주에 명예理博 수여

李월덕총장은 지난21일 오후4시30분 총장실에서 태국 출라브흔 공주의 정년퇴임 기념강연회가 지난 6월23일 오후3시 一山館 三十주년 이란 주제로 同科 교수 학생제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 (L301) 에서 열렸다。

石田李丙疇교수 정년퇴임 기념강연

石田 李丙疇 (국문과)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강연회가 지난 6월23일 오후3시 一山館 三十주년 이란 주제로 同科 교수 학생제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 (L301) 에서 열렸다。

學군단 이전

공대3원흥관으로

本校 학생군사교육단 사무실이 지난11일 공대옆 제3별관으로 이전되었다。

후기大學院 학위수여식

오는29일 박사21·석사1백85명

「86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수여식」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거행된다。

이번 후기 학위수여자는 박사학위 21명, 대학원석사 49명, 행정대학원석사 54명, 경영대학원석사 36명, 교육대학원석사 46명등 모두 2백6명이 되고있는데 박사학위 취득자는 다음과 같다。

▲徐周吉 (불교학) ▲曺勇吉 (〃) ▲金明姬 (국문학) ▲蘇洙萬 (영문학) ▲辛虎雄 (사학) ▲安圭哲 (교육학) ▲宋尙燁 (〃) ▲曺永喆 (행정학) ▲宋成柱 (경제학) ▲洪性樂 (불교학) ▲朴東燦 (경영학) ▲朴文奎 (화학) ▲吳順九 (〃) ▲吳中燁 (농학) ▲鄭龍文 (임학) ▲鄭玩鎬 (응용생물학) ▲李浩源 (〃) ▲金東萬 (〃) ▲金鉉九 (식품가공학) ▲吳英珍 (일문학과) ▲盧姬吉 (〃) ▲金明姬 (국문학) ▲曺勇吉 (불교학) ▲蘇洙萬 (영문학)

獨 레겐스大와 자매결연

지난달 9일 학술교류등 7개항 합의

본교는 西獨레겐스부르크 (Regensburg) 大學과 지난달16일 자매결연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양교간의 자매결연은 지난달 9일 李월덕총장이 訪獨 중 레겐스부르크大 총장과 만나 자매결연에 관한 의견을 교환, 합의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로써 본교와의 자매교는 뉴욕市에 소재한 콜럼비아대학교 (스토니부르크 캠퍼스) 와 한편 재결연하고있다。

학교당국자에 따르면 『기념부지로 책정했던 명진전문대와의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부지를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학교발전계획에 따라 80주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80주년 기념관 부지등 전면재검토

학교당국은 80주년기념관 건립부지및 마스터 플랜을 전면 재검토하고있다。

학교당국자에 따르면 『기념부지로 책정했던 명진전문대의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부지를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학교발전계획에 따라 80주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慶州 총학생회 출범식

내달2일 女總·각單大 학생회도

慶州캠퍼스 「제4대 총학생회 출범식」이 내달2일 오후3시·3일 양편에 걸쳐 일간에걸쳐 녹야원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서 열린다。

행사일정을 살펴보면 첫째날인 3日에는 길놀이를 필두로 사물놀이, 고전국악연구회의 탈춤공연, 출범식, 초청강연회등이 이어지게 된다。

한편 둘째날인 4日에는 민중노래, 강연, 해방동이모임, 소리극감연, 마당극단결의 場, 마력, 시국토론회등이 열리며 둘째날과 같은 장소에서 밤12시까지 각 단대의 출범식도 이날 함께 거행된다。

80주년 기념관 부지등 전면재검토

학교당국은 80주년기념관 건립부지및 마스터 플랜을 전면 재검토하고있다。

학교당국자에 따르면 『기념부지로 책정했던 명진전문대의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부지를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학교발전계획에 따라 80주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慶州 총학생회 출범식

내달2일 女總·각單大 학생회도

慶州캠퍼스 「제4대 총학생회 출범식」이 내달2일 오후3시·3일 양편에 걸쳐 일간에걸쳐 녹야원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서 열린다。

행사일정을 살펴보면 첫째날인 3日에는 길놀이를 필두로 사물놀이, 고전국악연구회의 탈춤공연, 출범식, 초청강연회등이 이어지게 된다。

한편 둘째날인 4日에는 민중노래, 강연, 해방동이모임, 소리극감연, 마당극단결의 場, 마력, 시국토론회등이 열리며 둘째날과 같은 장소에서 밤12시까지 각 단대의 출범식도 이날 함께 거행된다。

慶州 도서관

1백60석 규모확충

慶州캠퍼스 도서관·관장=金英吉) 은 도서관2층 서관을 1백60석의 열람실로 확충, 내달1일부터 개관한다고 밝혔다。

한편 80주년기념관의 모가 증대되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수동정

▲韓明希 (교육학과) 교수=UCLA대학 국비해외파견연구교수로 내달1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渡美。

▲洪錫强 (수학과) 교수=지난 10일 사범대학 과학교육계열 渡美。해외파견 연구교수로

▲廉俊根 (응계학과) 교수=오는 31일 국비 1년간 해외파견연구교수로 1년간 체류키 위해 渡美。

▲河憲國 (관광경영학과) 교수=87본교부학술연구조성비 (자유공모과제) 에 「국제관광에서의 삼바댄스의 역할」이라는 논문이 채택, 오는 31일까지 1년동안 문교부학술연구조성비를 발게된다。

후기大學院 학위수여식

오는29일 박사21·석사1백85명

「86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수여식」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거행된다。

이번 후기 학위수여자는 박사학위 21명, 대학원석사 49명, 행정대학원석사 54명, 경영대학원석사 36명, 교육대학원석사 46명등 모두 2백6명이 되고있는데 박사학위 취득자는 다음과 같다。

▲徐周吉 (불교학) ▲曺勇吉 (〃) ▲金明姬 (국문학) ▲蘇洙萬 (영문학) ▲辛虎雄 (사학) ▲安圭哲 (교육학) ▲宋尙燁 (〃) ▲曺永喆 (행정학) ▲宋成柱 (경제학) ▲洪性樂 (불교학) ▲朴東燦 (경영학) ▲朴文奎 (화학) ▲吳順九 (〃) ▲吳中燁 (농학) ▲鄭龍文 (임학) ▲鄭玩鎬 (응용생물학) ▲李浩源 (〃) ▲金東萬 (〃) ▲金鉉九 (식품가공학) ▲吳英珍 (일문학과) ▲盧姬吉 (〃) ▲金明姬 (국문학) ▲曺勇吉 (불교학) ▲蘇洙萬 (영문학)

職員人事

▲학생생활주임=免 ▲학생생활주임=免 ▲학생생활과장=免 ▲학생생활과장=免 ▲학생생활과장

社說

6月民主化의 평가

한적하던 캠퍼스가 다시 활기에 넘친다. 긴 여름방학을 산과 바다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나름대로의 계획하에 지냈을 학생들이 배움의 本堂으로 돌아온 것이다. 연례적으로 9月初이던 개강이 大學入試관계로 학사일정이 1주일정도 빨라졌다. 돌이켜보면 지난1학기는 반복재·반호헌의투쟁으로 점철되어 온 격동과갈등의 한학기로민주화 열기가뜨거웠던 시기였다.

4·13개헌논의유보조치와 5·21발표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사건은 개헌을 바라는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며 현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화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강건너 불보듯 좌시할수 없는 현실에 지성의 파수꾼일을 자부하는 대학인들은 민주화를 거냐한는 집권층과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대학의 현실참여에 일부에서는 좌경·용공의 올가미로 매도하기도 했다. 「자민투」「민통투」계열 학생들이 다소 격렬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구호와 조급한 투쟁 방법논의의 설정으로 일반국민과 다수학생들과의 대중적 확보와 연대감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편치 못한것은 사실이다. 「양키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군사파쇼 타도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등의 구호가 그것이다. 나름대로의 순진한 노선으로 대표되는 1학기학생들의 민주화요구 시위는 「호헌철폐」「독재타도」등의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구호와 집단행동으로 다수학생들과의 괴리감 극복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민주화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할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가열되는 민주화 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학내분제도 변혁추진 되었다. 총범당 시부터 명석한 노선부재로 무능력과 학생들의 의견속에서 중도 좌초가 예견되던 19代총학이 급기야는 학생들로부터 탄핵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한 선택으로 바뀐 2학년 전방입소교육이 우여곡절 끝에 격우 실시되었으며 예비군훈련을 「군사독재타도」의 일환으로 연관시켜 거부, 연기하기도 했다.

지난 1학기가 유례없는 시위문화와 결과로 민주화 촉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 2학기를 맞는 우리의 자세와입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진정 민주화는 이제부터라 할것이다. 혹자들은 6월민주항쟁결과라는 S大총학생회선명으로 대신 평가할수 있을것이다.

6월민주화는 사실 체온계를 부쳐놓고 「나에게는 열이없다」고 우겨대던 병자의 환상을 깨고 오래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그동안 우리가 써오던 低賃金에 의한 時點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高賃金, 高生産性, 低生産費, 高品質輸出로 그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한다. 물론 이것이 一朝一夕에 되는것은 아니지만 정책목표는 이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돌짝는 노동자를 집정으로 대변할수 있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企業人은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해결점을찾아야한다. 勞使가 동반자 로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립이나 이익추구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勤勞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美國의 團體交涉制度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것이다. 이제우리는 바야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지만 가장 어려운 형태의 정치조직이라고 한다. 왜 어려운가 하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우리는 참과 거짓이 明白히 가려지는 시점에 놓여있다.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리라.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규정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어야 하겠다.

勞使분규의 타결

6·29宣言이후 일어나고 있는 勞使間의 분규는 이미 천여건이 넘어서고 있으며, 그규모도 전국적으로 波及되어 있다. 이와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生産이 줄고 輸出에 차질이생길뿐 아니라 온國民이 걱정을 하게되었다.

그동안 政府와 企業이 追求해온 經濟政策의 基調는 부존자원이 적고 資本과 技術이축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低賃金, 低價格, 輸出促進이라는 도식을 사용하여왔다.

이러한 論理는 1970년대까지는 說得力이있는 政策이었다. 그러나 劣惡한 작업환경과 긴노동시간에다가 上下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노동자에 대한 人間的인 대우마저 소홀히 해온것은 비판을 받고 反省해야될 일이다. 그런가하면 조정의 역할을 해야할 정부가 절서의유지를 앞세워 노동관계법의 개정시마다 노동자의 단체활동을 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제새삼스럽게 술회하자면 과거의독재가 常이며 호황이었다면 현재의 민주는 變이며 불황이다. 차라리 진상에 가까운 민주의 實과 불황을 솔직히 시인함에 지나지 않을를, 이제 2학기를 맞으며 학내민주화의 요구와민주 불황을 호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게 우리의마음가짐이다.

勞使분규의 타결

지나치게 制約해나갔으며 과잉개입을 한것이 오늘의 불씨를 만든 것이다.

그 結果 勞組가 있는 企業마저도 어용적인 성격을 띠거나 그活動이 無氣力해져 그機成員들이 勞組를 信用하지 않는 風土가 배태된것이다. 이렇게 對話의 窓口가 막혀 벙어리 냉가슴 앓던 처지에 놓여있던차에 自由化물결을 타고 그동안 쌓였던 不滿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게 된것이 오늘날 勞使분규의 現實이다. 病因을 알았으니 치료를 해야되는데, 해결의 基本方向을 몇가지 提示하고자 한다.

첫째 經濟政策方向의 수정이다. 우리나라 經濟가 국내 國際收支面에서 만성적인 赤字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赤字의 원인을 勞組의 過多한 賃金引上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賃金은 生産性의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生産性은 技術革新과 企業의 投資意慾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써오던 低賃金, 低價格, 輸出促進이라는 도식을 과감히 수정하여 內需와 輸出의 균형을 이룩하는 成長率을 기록, 先進國을 향한 發展을 하기 시작하였다. 一時 發展途上國들이 동경하여 모방하려 했던 後發開主 政策으로 우리의 市場을 좁부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그동안 우리가 써오던 低賃金에 의한 국제경쟁력은 약화되는 時點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高賃金, 高生産性, 低生産費, 高品質輸出로 그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한다. 물론 이것이 一朝一夕에 되는것은 아니지만 정책목표는 이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돌짝는 노동자를 집정으로 대변할수 있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企業人은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해결점을찾아야한다. 勞使가 동반자 로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립이나 이익추구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勤勞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美國의 團體交涉制度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것이다. 이제우리는 바야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지만 가장 어려운 형태의 정치조직이라고 한다. 왜 어려운가 하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우리는 참과 거짓이 明白히 가려지는 시점에 놓여있다.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리라.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규정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어야 하겠다.

개헌과 정치·헌법투쟁의 諸과제

개헌과 정치상황

지금 우리의 정치상황은 그간에 피나는 희생을 치룬 민주화 개헌운동을 통해 일응 직선 대통령제 헌법을 인출을 신장하는 바탕위에서 마련하자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우리의 민주역량의 성숙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우리앞에 닥친 문제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다. 우선 당장에 대응책을 마련해 밑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굴복적으로 자행하는 과제는 통일·민주·인권으로 요약될수 있다. 어느시대, 어느사회에서도 자유제도가 저절로 주어진 적은 결코 없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우리의 부단한 정치상황을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인가? 1961년 5·16군사정변후 오늘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26년간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는 엄청난 숙제를 안고있는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부분별로 따져보며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아야 한다.

정치의 「행정화」와 시민생활의「탈정치화」

5·16군사정변은 이른바 「개발혁재」또는 「권위주의 체제시대의 출범이었다. 군사 쿠데타의 명분을 어떻게 내세웠던간에 그것은 정치에 있어서 군사통치문화의 시작이었고 그속성은 정치에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압살논리와 획일적·하향식·명령적 통제에 의한 규율과 질서의 추구였다.

그 지배체제의 정당성은 초기에는 반공에서 다음엔 경제개발과 함께 유교적 총효의 덕목의 강조로 나타났다. 이를 이호재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라고 했고, 한편 일부 학자는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했다. 아마도 양면의 특성을 함께 내포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 체제에서는 일부부재와 관료적 별를 만들어 독립의 봉괴로 그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났고, 더욱 두드러진 것은 의회 지위의 격하·왜소화로 나타났다. 이는 군사정변 후 개악된 헌법이나 제반 하위법에서 남김없이 그 정체가 나타난다.

官주도 수출지향형 경제와 독과점기업

경제의 외형적 성장이 차관과 부채 문제는 두고서라도 관의 비호하 국민의 희생·부담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열매가 어떻게분배되었고 그 성장의 그늘에서 노동자의 처지와 농촌경제의 파산을 초래한 것을 보아야 한다. 지금의 노사관계도 단속해왔고 그 경찰자원에서 안주한 기업인의 탄성은정당한 노사협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고 한편 노동자들은생존을 위해서 법률에 의존할수 있는 여건을 상실케 해서 터져나오는 문제이다. 농민문제나 소비자문제 그 밖에 공해문제 등등의 대중적 확보와 연대감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편치 못한것은 사실이다. 「양키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군사파쇼 타도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등의 구호가 그것이 나름대로의순진한 노선으로 대표되는 1학기학생들의 민주화요구 시위는 「호헌철폐」「독재타도」등의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구호와 집단행동으로 다수학생들과의 괴리감 극복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민주화투쟁의선구적 역할을 할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가열되는 민주화 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학내분제도 변혁추진 되었다. 총범당 시부터 명석한 노선부재로 무능력과 학생들의 의견속에서 중도 좌초가 예견되던 19代총학이 급기야는 학생들로부터 탄핵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한 선택으로 바뀐 2학년 전방입소교육이 우여곡절 끝에 격우 실시되었으며 예비군훈련을 「군사독재타도」의 일환으로 연관시켜 거부, 연기하기도 했다.

지난 1학기가 유례없는 시위문화와 결과로 민주화 촉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 2학기를 맞는 우리의 자세와입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진정 민주화는 이제부터라 할것이다. 혹자들은 6월민주항쟁결과라는 S大총학생회선명으로 대신 평가할수 있을것이다.

6월민주화는 사실 체온계를 부쳐놓고 「나에게는 열이없다」고 우겨대던 병자의 환상을 깨고 오래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그동안 우리가 써오던 低賃金에 의한 時點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高賃金, 高生産性, 低生産費, 高品質輸出로 그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한다. 물론 이것이 一朝一夕에 되는것은 아니지만 정책목표는 이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돌짝는 노동자를 집정으로 대변할수 있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企業人은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해결점을찾아야한다. 勞使가 동반자 로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립이나 이익추구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勤勞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美國의 團體交涉制度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것이다. 이제우리는 바야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지만 가장 어려운 형태의 정치조직이라고 한다. 왜 어려운가 하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우리는 참과 거짓이 明白히 가려지는 시점에 놓여있다.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리라.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규정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어야 하겠다.

문화정책의 관료주의화와 교육의 자치부재

문화의 발전은 자유와 비판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흔히 지나쳐 버리고 나아가서 자유로운 문화의 다양한 분출을 혼란으로 두려워하는 시각으로 보는 권력자가 있어왔다. 바로 5·16군사정변 이후의 집권자들의 시각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한 잘못된 시각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은 획일적인 관료적 규제이고 통제이며 검열·허가제로 나타날수밖에없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사회현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없는 「강단 민주주의의 허세」로 이어오고 나아가서 민주주의 자체를 왜곡시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시켰다. 이것은 10월 「유신」이라고하는 헌법파괴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문화는 자유와 비판을 바탕으로해서 발전된다. 문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청의 보조와 주문으로 하루 아침에 문화를 창조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아둔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란 사회의 각계각층의 이익을 위해 정당적으로 투입되는 압력을 정부가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다시 사회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이러한 투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과정은 이러한 투입기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사회의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활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억제와 통제는 사회의 자율적 조직화를 저해하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조장하게 된다. 이러한 의존성은 정부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고 정부는 이러한 압력을 처리하기 위해 더욱 억제와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정부의 기능을 과중하게 만들고 정부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악순환을 시정하려면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사회의 자율적 조직화를 촉진하여 사회의 자율적 통제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시민생활의 자유와 정치적 통제 문제

우리가 시민생활에서 자기의 자주적 생활영역을 가진다고 하는것은 시민적 법치국의 초보적인 요건이다. 그런데도 관료주의적 통제는 이 영역을 결코 방치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통제를 위하여 국가권력이 간섭·규제할수 없는 면에 까지 손을 뻗어 온 것을볼수있다.

시민생활에서 서로가 존중하며 공중도덕을 지켜나가는 기풍은 사회에서 남보다 위에있으려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는데서 된다. 『윗물이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곧 「세치기」식의 삶의 기법이 공공에서는 위에서부터 통하는 사회일반이 혼탁해진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긍지를 지니고 이 사회에서 자기 위엄을 찾아야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생활영역을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자주적사회결사의 봉괴와 그 복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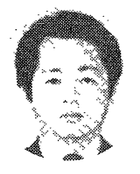
예전의 농경사회에서의 생활권익을 지켜주는 단위는 혈족·대가족공동체와 촌락 공동체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개인단위의 생활이며 따라서 각종의 사회결사를 통해서 자기를 조직의 힘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와 탄압은 그러한 조직의 터전을 허물었다. 노동조합이없는 노동자가 자기를 지킬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화·파편화되어 통제당하는 객체로 되었다. 이를 하루빨리 사회조직을 정상화함으로써 자기를살려나가야한다. 민주주의란 결국 이러한 자주적 생활권익을 지켜주는 단위로 부터 혜택을 받는 시민이 많아지는 과정이다. 그래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달려서 전체의 관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그간에 온실에서 사육되어 오는 봉화봉토가 일부 있어 오면서도 70년대이후 이를 거부하는 민중문화운동의 흐름이 우리의 문화계에 새로운 흐름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바라는 문화의 모습이다.

언론의 관제화와 상업화

문화면에서 언론기본법은 언론매체를 관제화하고 왜소화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인 독점 언론의 시대를 열어놓아서 사회문제보다 스포츠가, 그것도 흥행적 스포츠가 국가적·국민적 대사인양 유흥산업의 비대, 이상발달을 촉진시켰다. 「스포츠 공화국」「과잉정치기」식의 삶의 기법이 공공연히 자주적 생활영역을 가진다고 하는것은 시민적 법치국의 초보적인 요건이다. 그런데도 관료주의적 통제는 이 영역을 결코 방치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통제를 위하여 국가권력이 간섭·규제할수 없는 면에 까지 손을 뻗어 온 것을볼수있다.

시민생활에서 서로가 존중하며 공중도덕을 지켜나가는 기풍은 사회에서 남보다 위에있으려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는데서 된다. 『윗물이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곧 「세

86학년도 후기대학원 博士學位取得者 프로필



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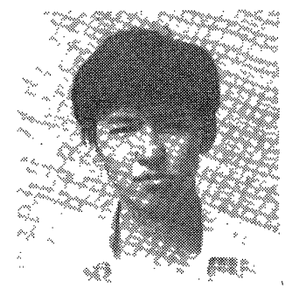
◇선학과 ▲이동훈=道元禪師의 坐禪觀: 正法眼藏의 現成案을 中心으로 ◇인도철 학과 ▲송인숙=八千頌般若經의 空性硏究 ▲이승호=胎藏界 曼荼羅의 構造와 成佛論 ▲주민황=茶羅의 構造와 成佛論 硏究—胎藏界 曼荼羅를 中心으로 ▲박범수=初期 如來藏思想의 二資觀 硏究 ◇국어국문학과 ▲박현숙=形成過程을 中心으로 ▲윤홍남=江陵方言의 超分節音素(Supraseg mental Phoneme)에 대한 고찰 ▲차부=詩的 想像力 ◇영어영문학과 ▲김명순=Lawrence의 나타난 자아실현의 추구—The Rainbow와 Women in Love를 중심으로 ▲최영주=As You Like it—상상과 현실의 대위법 ▲강미화=King Learr硏究—Learn(Suffering을 통한 自己理解 ▲한해원=An Essay on Man의 인간상 ◇사학과 ▲정병수=安鼎福의 思想硏究—西學과 性理學에 대한 認識을 中心으로 ▲윤학로=東아시아 弓矢說話의 硏究 ◇언더우드학과 ▲이영택=韓國리얼리즘 演劇의 樣態分析—大韓民國 演劇祭 참가作品을 中心으로 ▲장경옥=Living Theatre의 작품세계 ◇정치학과 ▲이용환=憲法上의 平等權 硏究 ◇경제학과 ▲한인구=經濟成長과 所得分配의 關係 분석 ▲박성호=通貨와 所得 분석 ▲김상현=韓國에 있어서 財政·金融政策의 相對的 유효성 분석 ▲양현탁=新製品開發의 아이디어 創出에 관한 硏究 ▲정보선=韓國企業內 上司와 部下간의 수직적 關係에 관한 硏究 ◇수학과 ▲김무희=ON THE PROPERTIES OF THE HOMOGENEOUS INTEGRAL 分解 ▲김종한=SURVEY ON THE UNIVERSALITY INVARIOUS ALGEBRAIC-STRUCTURES ◇물리학과 ▲김성일=박물현상에 대한 光電도硏究 ▲박경림=Mössbauer분광법에 의한 $BaFe_2O_4$의 특성 硏究 ◇화학과 ▲조석우=표고버섯중의 Light-Induced Mitochondrial AT-pase활성도에 관한 硏究 ◇통계학과 ▲천춘수=韓國의 保健醫療서비스 需要에 대한 統計的 分析(1979~1986) ◇전자공학과 ▲최형춘=姿次 等分 柴出法에 의한 制御器의 最適設計 ▲이주호=고속 GaAs 1K SRAM 설계 ◇전기공학과 ▲김종한=시스템의 설계및 구현 ▲남상우=특정영역에대한 의학전문가 시스템의 설계및 구현 ▲김승범=발열현상에 관한 硏究 ▲박정호=中學校 과학교육 ▲김재섭=한국의 해양오염방지에관한 연구—선박으로부터의 기름오염을 중심으로 ▲김종대=건설업의 산업재해예방대책에관한 연구 ▲정만수=한반도주변해양오염방지에관한 연구—선박기인오염을 중심으로 ▲민경일=재해손실비용(cost) 산정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익로=작업안전대책에 관한 연구—금속제조업을 중심으로 ▲남상완=전기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연구—고압·특고압전기를 중심으로 ▲한성수=대책 및 대책방안에관한 연구 ▲이복희=LP가스 안전대책에관한 연구—특히 교육홍보·유통조·자율적 안전관리체제를중심으로 ▲문해성=산업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김동일=88서울올림픽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LA대회의 事例를 중심으로 ▲홍성춘=고층건물의 화재시 인간의 피난계획의 수립에 관한 硏究 ◇교통행정 ▲김동일=88서울올림픽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LA대회의 事例를 중심으로 ▲홍성춘=고층건물의 화재시 인간의 피난계획의 수립에 관한 硏究 ◇교통행정 ▲김동일=88서울올림픽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LA대회의 事例를 중심으로 ▲박기룡=경찰공무원의 능률발전에 관한 硏究 ◇소방행정 ▲강석춘=고층건물의 화재시 인간의 피난계획의 수립에 관한 硏究 ◇재정학과 ▲배종삼=한국 경제의 안정과 지방재정의 확충 ▲김재한=韓國土地所有制度의 變遷에 관한 硏究 ▲토지소유제도의 현대적 의의와 발전방향 ▲남상억=不動産鑑價에 따른 住宅償還借에관한 硏究 ▲이철수=부동산등기 ◇부동산학과 ▲변기열=賃貸住宅供給擴大를 위한 小考—부주택저소득계층을 中心으로 ▲이석규=住居서비스 適正配分에 관한 硏究 ▲윤홍모=土地價格 安定化를 위한 改善方案 ▲김창준=우리나라 土地政策의 課題와 方向 ▲김재한=韓國土地所有制度의 變遷에 관한 硏究—토지소유제도의 현대적 의의와 발전방향 ▲남상억=不動産鑑價에 따른 住宅償還借에관한 硏究 ▲이철수=부동산등기 ◇부동산학과 ▲변기열=賃貸住宅供給擴大를 위한 小考—부주택저소득계층을 中心으로 ▲이석규=住居서비스 適正配分에 관한 硏究 ▲윤홍모=土地價格 安定化를 위한 改善方案 ▲김창준=우리나라 土地政策의 課題와 方向 ▲김재한=韓國土地所有制度의 變遷과 관련

◇87년 상반기 민주화 운동 분석과 하반기 전망

민중의 국가권력으로 민주사회를

올바른 대중정치 지도에 실패

민중과 결합된 선도투쟁 돼야



지 석 규
<공과대 전자공학과>

80년이후 고양되는 민중의 의식과 광범위한 계층의 민주화요구의 분출은 지난 6·10을 기점으로 커다란 질·양적 팽창을 가져왔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운동의 성장속에서 민중투쟁이 갖는 한계성, 앞으로 전개될 정치상황과 민중운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1、머리말

87년 상반기는 해방후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분기점을 만들어 낸 시기였다。민중들이 민주화투쟁의 전면에 등장한것이 그것이다。이는 민주주의 양·질적 발전에 따른 과제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중의 의지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필연화 될 수밖에 없는 정권의 비정통성에 기초한 반민주·반민중성이 폭로되는 제사건들과 결합되면서 실천적 저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적으로 광범위하게 폭발하기 시작하여 6·10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 대중정치 시위로까지 성장했던 민중투쟁의 한계는 무엇이었나를 살펴보고、이것에 근거하여 앞으로 전개될 정치상황과 민중운동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한다。

2、대중성회복과 대중지도의 문제

86년까지의 학생운동·노동운동등 민주화운동에서 운동세력이 대중과 결합하지 못하므로 인해 투쟁역량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일반적인 평가하에 소위「획기적 대중노선」추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대중적 토대건설이라는 기조에따라 선도적 정치투쟁 기피로까지 비약됨으로써 민주운동세력들은 정치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전망 부재로 곤란을 받아야만 했다。그 예로 학생운동에 있어서는 지난4월 투쟁과 5월투쟁을 단편적이고 지속성을 결여한 축제분위기속의 개별적시위로 그치게 하였으며、전술적과제를 대중과 결합시키는 대중적 정치투쟁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것은、86년까지 계속되어온「선도적 정치투쟁론」은 이후 노선상의 수정으로까지 이어졌던바、이는 실제적으로는 소위「획기적 대중노선」추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대중적 토대건설이라는 기조에따라 선도적 정치투쟁 기피로까지 비약됨으로써 민주운동세력들은 정치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전망 부재로 곤란을 받아야만 했다。그 예로 학생운동에 있어서는 지난4월 투쟁과 5월투쟁을 단편적이고 지속성을 결여한 축제분위기속의 개별적시위로 그치게 하였으며、전술적과제를 대중과 결합시키는 대중적 정치투쟁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것은、86년까지 계속되어온「선도적 정치투쟁론」은 이후 노선상의 수정으로까지 이어졌던바、이는 실제적으로는 소위「획기적 대중노선」추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대중적 토대건설이라는 기조에따라 선도적 정치투쟁 기피로까지 비약됨으로써 민주운동세력들은 정치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전망 부재로 곤란을 받아야만 했다。그 예로 학생운동에 있어서는 지난4월 투쟁과 5월투쟁을 단편적이고 지속성을 결여한 축제분위기속의 개별적시위로 그치게 하였으며、전술적과제를 대중과 결합시키는 대중적 정치투쟁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변화된 상황과 과제

평가해보면 어떠한 부분도 대중들의 자연발생적이며 관념적 투쟁을 전환으로 지도해 나갈수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조직의 건설이 심급한 과제로 보여진다。

민중들의 항쟁은 후퇴와 전진을 거듭하면서 지배체제의 숨통을 조여들어왔다。그러나 아직 대다수 민중의 계급적 정치의식은 자생적 항쟁과 원초적 파괴력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민주투쟁의 성과는 개헌협상으로 귀결되어 반민주적 기회주의자들에게는 가장 많은 몫을、민중의 손에는 가장 적은 몫을 남긴채 「개량의시대」로 접어들어 그 활동을 멈춰버리게하고 있다。

이제 타오르던 개혁의 불길은 잠시 꺼져있다。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는 새롭운 불씨가 내연하고 있다。이 불씨를 키워올릴 거대한 폭발력이 필요했던 것은 과학적인 전망을 부여해주고 올바른 전술에 입각하여 투쟁을 지도해주는 「지도체」였던 것이다。5월말에 결성되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에 6·10 투쟁의 전국적 통일조직체로서의 지도의 일부가 부여되었으나 당시상황을 평가해볼때 상징적 지도부는 되었을지언정、지도력·실행력에 많은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고 대중의 자생적 투쟁을 지도하지 못하였던 점과역시 대중들의 자발적투쟁을 지도하려는 노력을 보다는 정치의식면에서 상당한 괴리 비약을 하고있는 대중들의 역량을 과소하게 평가하여 소위「대중노선」만을 경직하게 고수하려했고 투쟁의열기가 고양되가자 이러한 학생대중들의 투쟁을 지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追隨해가는 처지로 전락하고말았다。

한편 지난86년5월부터「개량아닌혁명을는개헌아닌 제헌」을 지향하려고 했던「제헌의회」소집론자들은 우리사회의 현정세를「혁명을 예고하는 상황」이란 주장아래 대중과 결합되지 못하므로 그 역량을 축적해 오지못했기에 87년에 들어와서 학생운동권의「소수」로서 사실적인 지도역량을 갖추어내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전망을 부여하고 계획으로서의 전술투사를 지도함으로써 6월투쟁이 고양돼가는 속에서 선진적 학생대중들의 지지를 발게 되었고、그들이 주장했던 상황분석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특히 6·29선언이후「서대협」으로 대표되는 운동세력의 올바른 전술지도의 부재(이들은 남한에서는 민국이 직선제를 결코 허용해줄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직선개헌의 협명성을 주장해왔다)로 곤란받아야 했고、일시적 연합의 성격을 띠고 이에 동조하던 많은 운동세력의 이탈내지 비판을 받았던 점을 생각할때 소위「소수」로 존재하여야 했던 투쟁을 전환으로 지도해 나갈수 있었다는 점에서 직선제

◇최근 노사분규의 근본원인과 해결 방안

○…지난 6월의 민주화투쟁으로 사회의 민주화 바람과함께 노사문제도 경제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있다。그럴에도 불구하고 노사분제가 기존의 노동법제학규정과 제반 악법들이 존재하고있어 노사관계 정립을 가로막고 있으며 원인을 도외시한채 표면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함에 따라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있는 실정이다。이에 本稿에서는 노사분제의 근본원인과 배경들을 노동법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註〉

Ⅰ、8월노장파업투쟁의 성격과 원인

작금의 전국각곳에서 진행되고있는 노·사간의 대립과 투쟁을 현단계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성격지우며, 의미를 부여하느냐에따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수 있다고 볼때 현하, 투쟁의 성격규정은 반노재민주화와 반외세 자주화투쟁전선의 진영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일수 밖에 없다。다만, 현재로서는 전체운동의 진행과정속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지금의 단계를 가설정으로 나마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8월투쟁의 성격

본래 대중스트라이크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법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전과정에서 나타난 투쟁의 종합적 표현이고

㉢정세투쟁과 정치투쟁을 가장 전형적으로 결합시키는 모델로서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자본주의를 변혁하려는 주력군을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투쟁의 형태이다。

전국노동운동의 회이후 최초로 나타난 8월의 대중스트라이크는, 6월 군사독재 타도투쟁을 통하여 가열되어진 대중투쟁이 6·29선언을 계기로, 기층쪽으로 전화된 것으로서, 각부문운동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 나타난 필연적인 귀결이며, 생존권 확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조직으로 연결하려는 계획적인 투쟁이라는 점에서 군사독재 타도투쟁의 연장이며 계급투쟁의 본격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배경과 원인

매판성과 관료성, 그리고 독점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하는 자본은 자신을 대변하는 정부를 통해서 제도와 정책 및 폭력을 동원함으로써 초보적인 노동3권을 제압하며 유지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다。즉, 노동자계급의 도전과 자본가계급의 반격이라는 역학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온 노사의 관계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에 의해 육성되어진 자본가계급의 일방적 공세속에서 제도가 결정되고 정책이 입안되며, 폭력이 행사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계속적인 수세에 몰리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ㄱ)자본은 그들의 대리자인 대한노총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대변자인 전평을 박살내고,

(ㄴ)대한노총은 자신의 모습을 한국노총으로 변신시켜 혁명적 노동운동을 개량화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무력화 시켰고,

(ㄷ)끊임없이 전개되는 혁명적 노동운동을 봉쇄전분으로 압살시키며,

(ㄹ)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부분적 양보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 그리고 계층간의 분열책동을 통하여 노동법, 특히 노동3법을 개정으로 제한함으로써 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봉쇄하려고 획책하였다。

1、근로기준법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규정한 법률로서

(ㄱ)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항, 즉 가부장적 주종관계하에서의 불법감금과 강제노동및 폭행을 봉쇄하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진것으로서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그러나 한국자본의 관료성과 더불어 반동적 전제가 노동법을 반영한 개별적장주들의 전근대성에의해 거부되고있으며 특히 생존권박탈을 위한 해고는 정치적이유에 의해 적극 권장되고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ㄴ)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조항으로 노동시간과 임금및 노동환경의 최저기준을 강제화시킴으로써 노동력미모현상을 적결하기위한 본원입법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8시간노동제의 폐기와 최저임금제의 미실시 및 산업재해 예방책의 미비등의 보완책없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설정한 최저 근로조건이 현실적으로는 최고의 목표가 되고있다。

ㄷ)위의 (ㄱ)과 ㄴ)는 감시·감독하는 근로감독에 관한 조항으로 경제적 열세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주사법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다。

그러나 불건적 유습에 대한 감시와 최저근로조건의 준수여부를 감독·감시하는 권한과 책임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사문화된지 오래다。

ㄹ)노동조합의 운영

①임원 선거에 대한 허가제

②총회와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의 신고제

③규약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획일화

④조합비사용의 제한

⑤제3자 개입금지

⑥정치활동의 완전한 금지

⑦행정관청의 무제한적 간섭과 경의사항·규약의 취소와 변경, 해산의 자의적 판단의용등으로 행정관청의 전등한 힘으로 감시·감독토록 만들었다。

ㅁ)단체교섭

①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②단체협약 내용의 신고제및 행정관청의 허가제등으로 시기와 범위를 제한시키고있다。

ㅂ)부당노동행위

①노동조합결성에 대한 탄압

②노동조합운영에대한 간섭 ③단체교섭의 거부 ④쟁의금지등이 있으나 이에대한 구제신청의 벌거론을 통한 불가능으로 그 실효성이 없게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노동3권중 가장 기초가 되는 단결권 그자체의 완전하게 파괴화시킴으로써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는 쟁의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계급은 혁명적 노동운동의 폭열속에서나마 조합주의적 한계를 갑내하며 민주노조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지만 자본가계급에 의한 무자비한 공격적 탄압, 혁명적 노동운동의 축적된 경험의 단절과 투쟁경험의 공유화를 실현시키지 못함으로써 그것은 다만 운동인자의 배출구조로서 만족해야했다。이러한 배경위에서 상층에서의 반노재투쟁세력과의 부분적 연결하에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었지만 자본가계급의 결집력을 더욱 촉진시켜 결국 추종관계로 환원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은 혁명적 노동운동의 폭열속에서나마 조합주의적 한계를 갑내하며 민주노조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지만 자본가계급에 의한 무자비한 공격적 탄압, 혁명적 노동운동의 축적된 경험의 단절과 투쟁경험의 공유화를 실현시키지 못함으로써 그것은 다만 운동인자의 배출구조로서 만족해야했다。이러한 배경위에서 상층에서의 반노재투쟁세력과의 부분적 연결하에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었지만 자본가계급의 결집력을 더욱 촉진시켜 결국 추종관계로 환원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은 혁명적 노동운동의 폭열속에서나마 조합주의적 한계를 갑내하며 민주노조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지만 자본가계급에 의한 무자비한 공격적 탄압, 혁명적 노동운동의 축적된 경험의 단절과 투쟁경험의 공유화를 실현시키지 못함으로써 그것은 다만 운동인자의 배출구조로서 만족해야했다。이러한 배경위에서 상층에서의 반노재투쟁세력과의 부분적 연결하에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었지만 자본가계급의 결집력을 더욱 촉진시켜

민주노조에 의한 노동자 權益증대가 관건

현재의 노동법은 노사의 역학적 관계에 의해 成案된 것이 아니라 절대의 치안유지책의 일환으로 급조된 대적 장식물일 뿐이다。

외적 장식물일뿐 아니라, 정단적 노사관계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노동위원회법이 정규무도하게 들어가도록 법제화되었고 노·사관계를 봉쇄적 틀에 가두어 놓기 위한 노사협의회법에의해 노·사관계를 또다시 봉쇄적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Ⅱ、노동법을 통해 살펴본 노동문제의 구조

가볼한 노동력 착취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Ⅰ노동력마모현상을 타개하고 격렬한 체제변혁적 노동운동을 체제속에 몰아넣기위한 노동법은 자본주의의 발전의 정도와 총자본과 노동자계급간의 투쟁의 정도에 의해 내용과 범위가 규정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사회가 존속하는한 총자본이 노동자계급을 제도속에 묶어두려는 지배의지에 불과한 것이다。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모순이 가장 첨예하고 극명하게 드러나는곳이 노동현장이라면, 노동법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고 위장하려는 자본가계급의 분장술이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회유책이라고 볼수 있다。이러한 기본적 전제를 깔고 현재의 노동법, 특히 노동3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1、근로기준법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규정한 법률로서

(ㄱ)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항, 즉 가부장적 주종관계하에서의 불법감금과 강제노동및 폭행을 봉쇄하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진것으로서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그러나 한국자본의 관료성과 더불어 반동적 전제가 노동법을 반영한 개별적장주들의 전근대성에의해 거부되고있으며 특히 생존권박탈을 위한 해고는 정치적이유에 의해 적극 권장되고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ㄴ)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조항으로 노동시간과 임금및 노동환경의 최저기준을 강제화시킴으로써 노동력미모현상을 적결하기위한 본원입법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8시간노동제의 폐기와 최저임금제의 미실시 및 산업재해 예방책의 미비등의 보완책없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설정한 최저 근로조건이 현실적으로는 최고의 목표가 되고있다。

ㄷ)위의 (ㄱ)과 ㄴ)는 감시·감독하는 근로감독에 관한 조항으로 경제적 열세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주사법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다。

그러나 불건적 유습에 대한 감시와 최저근로조건의 준수여부를 감독·감시하는 권한과 책임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사문화된지 오래다。

ㄹ)노동조합의 운영

①임원 선거에 대한 허가제

②총회와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의 신고제

③규약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획일화

④조합비사용의 제한

⑤제3자 개입금지

⑥정치활동의 완전한 금지

⑦행정관청의 무제한적 간섭과 경의사항·규약의 취소와 변경, 해산의 자의적 판단의용등으로 행정관청의 전등한 힘으로 감시·감독토록 만들었다。

ㅁ)단체교섭

①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②단체협약 내용의 신고제및 행정관청의 허가제등으로 시기와 범위를 제한시키고있다。

ㅂ)부당노동행위

①노동조합결성에 대한 탄압

②노동조합운영에대한 간섭 ③단체교섭의 거부 ④쟁의금지등이 있으나 이에대한 구제신청의 벌거론을 통한 불가능으로 그 실효성이 없게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노동3권중 가장 기초가 되는 단결권 그자체의 완전하게 파괴화시킴으로써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는 쟁의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8월의 대중스트라이크는 기본적 생존권 확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동자대중의 정치투쟁조직으로 연결하려는 계획적인 투쟁이다。

2、노동조합법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ㄱ)노조설립의 조직의 자격제한등으로 결성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②노조설립신고 반려제도를 통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만들었으며

③제3자개입의 금지와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였으며

④기업별협태로만 국한시키되 관제노조의 허가를 필요로하고

⑤고용관계와 조합관계의 자유로운 유니언샵제도를 축소하여 조직확대를 막고 있으며

⑥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산토록 만들었다。-이렇게하여 노조결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기존노조를 관제화시켜 버리고 말았다。

3、노동쟁의조정법

노·사관계와 공동이익의 상호관계하에서의 쟁의금지법률로서 단체교섭의 내용을 규정하여 단결의 내용과 유효기간의 연장등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기능자체를 거의 완전에 가깝도록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ㄱ)자연발생적 투쟁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활동의 중심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ㄴ)신문의 배포망을 현장조직의 확대로 연결하여야한다。

ㄷ)확대로 연결하여야한다。

ㄹ)사상투쟁의 선무제를 올바르게 방향하여야한다。

ㅁ)이러한 신문을 매개로하여 각운동조직의 신문과 기관지를 전문화시켜야 한다。

결론적, 위에서 열거한 제과제는 결국원인은 의식적 섭취과같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중요한 체기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것을 힘있게 움켜쥐고 목적의식적으로 다음에 나갈때만이 우리의 것으로 될수 있다。

즉 작금의 여러 제운동들중에서 일부의 일률적인 정책인 상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 故이성규열의 산화를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연결고리로 놓지않고 힘있게 밀고나갈때 비로소 우리의 목표는 성큼 앞으로 다가설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이다。-살아 故人의 죽음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노동형제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피의 갈등속을 수장시키고 그들을 수장시키고 그들을 처벌에 포함시키되 고용주의 직장폐쇄를 신고만으로 허가하도록 되어있는 점이다。

이상, 개략적으로 살펴본 노동3법의 문제점은 노·사의 역학관계에 의해 반영되고 성안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치안유지책의 일환으로 급조된 대중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자본의 독점적을 신장해주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정책은 일체하 치안유지를 위한 제정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

즉 ①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및 법원과 검찰로 구성되는 노동대책위원회 ②①의 결정사항에따라 철부수권을 행사하는 일선경찰 ③, ①에서 결정된 사항에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대책을 지도해주는 노동부 ④구우 발붕이데올로기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매도하는 보안부의 적 교회의 지원과 대중매체의 조작 및 어용노총의 간접동조등이 실질적인 노동3권의 내용을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유형·무형의 정책을 동원하여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관제어용노총의 발등까지도 포섭하여 과편화시킴으로써 무력화시킨 자본가계급은 추종관계로 환원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체제내로 흡수하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간의 긴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권력에 균열이 생겨나고 공백기가 나타나게되면 어김없이 노동운동은 격렬하게 전개될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계기가되어 조직력이 급속히 강화되어 갔던것이다。이러한 시기는 더욱 반동화되어가는 자본가계급의 재반격에의해 마감되어버리고 노동운동은 또다시 조합주의적 한계로 돌아가게 되는것이다。이러한 순환적 반복이계속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은체제내로 흡수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선전을 체기간과 중재에 회부된 경우 또다시 20일간, 긴급조정시 무조건 30일간 쟁의행위의 금지이며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의 일방적 판단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특별히 유의할 것은 개별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근로기준법은 고용주만을 처벌하게 만들었으나 쟁의조정법은 노동조합 추종관계로 환원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이상 노동3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을 대표적 노동입법으로 본다-세계최장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産災발생율, 현격한 노동운동을 개발화하기위해 창설된 국제노동기구에의 가입이 저지되는 것에서 보듯이 사상초유의 악법이며 국제노동계에서의 미아일을 자랄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 마땅

어용勞組와 대중매체의 조작이 문제

단결권 보장으로 노조활성화

노동3법 보장의 제도적 장치 시급

Ⅲ、긴급한 과제

군사독재타도투쟁의 연장이며 계급투쟁의 본격적 발현인 현하의 대중스트라이크를 조직역량으로 묶여세우는 기본과제와 반노동자적 정책과 제반악법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의 주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대한 해결의 단서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다。그것은 노동자대중의 정치투쟁조직의 건설에있다。즉 노동자 대중의 정치투쟁조직의 건설이야말로 반노동자적 제반요소에 대한 철폐투쟁을 부추김으로써 제한 권리를 신장시키는 투쟁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러한 투쟁역량을 조직역량으로 전환시키기위한 가장 긴급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활동의 중심고리인것이다。

김 찬 국 〈자유기고가〉

命理精說의 저자가 20년의 産苦끝에 낳은 민족혁명서

의명 이준우 지음

자아혁명과 한국통일

절찬재판 판매중

• 민족통일 독자가 100만인이 되는날 통일성업 이룩

◎개국이상 민족구원의 사상을 불교·유교·기독교 교리를비교·민족주체성 위에서 천천 민족혁명서!

◎물질주의 공산이념·퇴폐풍조를 극복하는 우렁찬 자아혁명·五德思想 도덕적 민주론을 주장

도서출판 보림사 총342면, 3,800원

五德院 (269-4696, 543-5031)

전국총판 : 진명서적 272-5871~6

尹仁永 第3詩集

連詩狀況

尹仁永 詩集

세상은 심혼의 찌꺼기마저 쉴곳이 없는 時空間의 對立이나 峙立이 유행하고, 우리의 현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물결이 거세니 그 杂落性은 무어라 설명할 길이 없다.

—後記 중에서

生動하는 反메카니즘의 힘찬 메세지—

값 3,000원

예진서관

문학 교수 尹在天의 끝없는 자기갱신!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사이

尹在天 隨筆集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전함을강요하는 것도 무리이고, 실수가 전혀 없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이 있는 일은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다. 시작만이 있을 뿐 끝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다.

가격 3,300원

예진서관
서울·마포구 도화동 345-3호
☎712-7398, 718-2468

3 오늘의 질문총서

신념의 언어와 예술의 언어

온갖 사물에 대하여 통상 무심하다가 어느날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놀랄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품을 대하는 느낌과 감동이 독자의 삶의 체험이 깊어짐에 따라 달라지며 명작일수록 그것이 가지는 본질과 의미가 깊어지고 다양해지며 명료해지는 듯 싶다.

洪禎云 評論集

보통사람을 위한 문학이해의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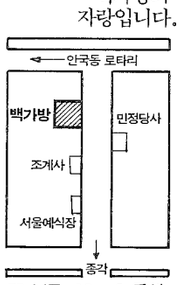
도서출판 五象社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4-57, ☎714-5046.

百家房

문화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백가방에서는 표구를 비롯 고서화 상담 및 알선, 매매를 하고 있읍니다.

예술 세계의 만족

그것은 표구업계의 선두주자인 백가방의 자랑입니다.



고서화매매 병풍, 액자 동양자수, 족자 고급표구 전문

서울特別市 鍾路区 堅志洞 32-3 番地
(TEL) 735-0234
主人 白 潤 宗

全國大學新聞 광고문의 • 741-1166612

㈜제일애드·진 ZEN ADVERTISING INC.

팽창주의적 경쟁관계의 대립

——페르샤만사태의 배경과 그 영향

1천여명의 사상자를냈던 메카 유혈사태의 충격으로 이지역긴장은 종교분쟁, 자원쟁탈, 민족감정 그리고 미·소열강의 세력팽창등이 복잡하게얽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이지역사태의 근본배경을통해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外國語大·政外科교수〉 柳 正 烈

中東地域에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두개의 『危機 地帶』(CRISIS AREA)가 있다。그 하나가 『팔레스타인』이고 또 다른 하나가 『페르샤灣』인 것이다。

1948년 5월에 팔레스타인지역에 이스라엘이 建國된 이후 폭발된 팔레스타인問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國際聯合을 비롯하여, 강대국, 또는 당사자들이 다각적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네차례에 걸친 中東戰爭, 즉 1948년의 第1次戰爭, 1956년의 第2次戰爭, 1967년의 第3次戰爭및 1973년의 第4次戰爭을 되풀이 했으며, 지금은 레바논사태로 비화되여 인명, 재산피해는 물론 그 앞날은 암담하기만 하다。

페루샤灣문제는 현재 그의 심각성을 가중시켜가고 있으며, 그의 폭발성은 제3차세계대전을 예고하는 성급한 여론이 있는가 하면, 불안조성 「에너지」의 한계성을 갈안 서서히 열기가 냉각될것으로 내다보는 식자들도 있고, 따라서 예측 불허의 혼란과 불안정을 거듭하며 혼미상태에 빠져 있다。

페루샤만에 한정시켜 오늘의 중동사태를 분석해 보면, 오늘의 페르샤만사태는, 이 지역의 「지전략적」인 중요성과 (GEO-STRATERFIC) 가장 중요한 세계에너지자원인 石油」때문에,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온 세력들간의 국수전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市 외곽에는 아직도 蒙古의 『징기스칸』이 페루샤제국을 침공해 가서 세워놓은 城의 일부가 우뚝 솟아있을을 볼수 있으니 옛부터 동서간의 군사적인 대이동을 위시해서 실크·로오드를 따라 隊商들이 동서를 왕래했을때 란드지 각축을 연상해 보면 이 지역의전통적인 지배세력이었던 열국과 불란서세력의 후퇴로 美國이 등장했고, 1956년경부터 소련의 세력이 증강돼 점에따라 美·蘇간에 세력경쟁과 균형성문제로 이지역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1970년의 『수에즈以東의 英軍철수』계획은 美·蘇의 각축을 여러면에서 더욱 조장했다。

소련의 南下팽창정책이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되며, 제2차세계대전이끝난 10년후인 1955년2월에 드디어 바그다드條約이 이라과 土耳其간에 체결되였으며 곧 英國, 파키스탄및 이란이 이에 가담하게 되었으니 이는 『北方地帶同盟』(NORTHER TIER ALLIANCE)으로 알려진 美國의 프로젝트로서, 소련의 中東地域을 향한 南下팽창을 제지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동맹이였다。그러나 이 바그다드조약은 失敗로돌아갔고 소련은 계속 그의 勢力을 南下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키신져時代에는 『카이로-리야드-테헤란軸』形成으로 『戰略的合意』 모색에 나서 對소봉어달구축을 시도 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선, 레이건·헤이그팀이 『南方地帶同盟』(SOUTHEKN TIER ALLIAUCE)를 형성하려 했으나, 역시 對소견제 『戰略的合意』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석유자원에 대한 쟁탈전이 격화되어가는 오늘의 世界정세를 우려하며 1984년을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에 비교하며, 제3차세계대전이 페루샤만에서 1984년경에 발발할 위험성이 짙다고, 한 著名한 美國의 國際政治學者가 1980년에 『接近에로의 鬪爭』(STRUGGLE FOR ACCESS)이라고 논문에서 경고한 바도 있다。

非産油國家들의 페루샤灣沿岸 産油國에 대한 석유의존도는 실각하며, 특히 페루샤灣을 向한 소련의 지속적 南下팽창정책이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되며 제2차세계대전이끝난 10년후인 1955년2월에 드디어 바그다드條約이 이라과 土耳其간에 체결되였으며 곧 英國, 파키스탄및 이란이 이에 가담하게 되었으니 이는 『北方地帶同盟』(NORTHER TIER ALLIANCE)으로 알려진 美國의 프로젝트로서, 소련의 中東地域을 향한 南下팽창을 제지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동맹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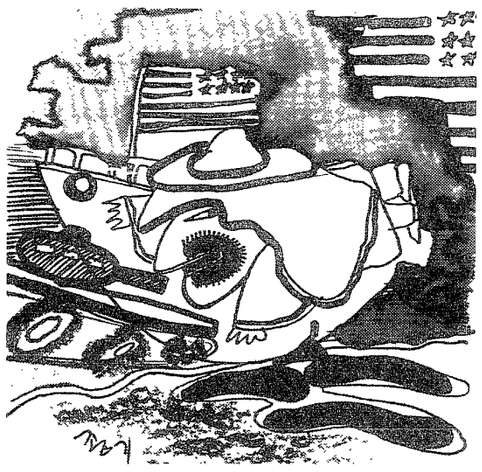
그러나 이 바그다드조약은 失敗로돌아갔고 소련은 계속 그의 勢力을 南下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소련의 南下팽창정책이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되며, 제2차세계대전이끝난 10년후인 1955년2월에 드디어 바그다드條約이 이라과 土耳其간에 체결되였으며 곧 英國, 파키스탄및 이란이 이에 가담하게 되었으니 이는 『北方地帶同盟』(NORTHER TIER ALLIANCE)으로 알려진 美國의 프로젝트로서, 소련의 中東地域을 향한 南下팽창을 제지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동맹이였다。

그러나 이 바그다드조약은 失敗로돌아갔고 소련은 계속 그의 勢力을 南下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지역간 세력균형·안보주도할 강자 출현 바람직

國益의 충돌앞엔 민족동질성 무의미



페르시아만문제의 차후 심각성은 예측불허의 불안정과 미·소의 페만통로구축을 위한 각축으로 국제적 혼미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6·29선언의 본질과 한계성

6·29선언 이후 집권연장의도 가시화

盧 선언이 政略인가

기층민중요구와 통일의지 담았는가

〈대학원석사과정 사회학과〉 박 희 승

지난 6월 그 뜨거웠던 갈격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학생들이 선봉에섰고, 참된 정치인, 지식인 그리고 노인들 까지 참가했던 저 성스런운 민주의 물결이 눈앞에 선하다。

역사에서 6월 항쟁은 우리민족사의 반외세반독재 민주 쟁취의 역정선에 있었다。잔혹한 일제에 짓밟힌후 해방 후 미국의 비호하에 이승만 박정희 독재가 민족과 민주를 아무리 짓밟아도 민초는 그냥 눌려 있지만은 않았다。6월 항쟁은 바로 민중들이 자기 권리, 빼앗긴 민주적제권리를 찾고자 투쟁으로 다시일어선 그날들이었다。

이른바 「6·29 민주화 선언」이것은 무엇인가? 정권의 자기반성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정권연장 술책인가。이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집권세력의 등장과정과 국민의 민주화 요구내용, 그리고 민독사의 발전과제를 기준하여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현 정권은 비장한 독재자의 말로이후, 80년 국민의 민주화 염원을 하루밭에 무산시킨 사람이다。그들은 민주화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을 무참히 탄압하고 많은 민주인사를 구속하면서 등장한 정치권력이다。

이렇듯 정권의 정통성을 상실한 집권세력은 공정한 룰에 의한 정상위주의 경제정책과 올림픽 유치를 통해 정통성 확보를 꾀해왔다。그러나, 국민은 편중된 부와 결만 화려한 올림픽보다 빼앗긴 내용있는 민주를 원했다。즉 국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자신들도 살아 남을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6·29」, 제도언론이 소위 민주화 선언」「민주화의 영단」하지만, 실사 그것이 영단일지라도 그것은 정권에게 영단일 뿐이다。그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선택이 없었다。

첫째, 외세의 예속으로부터 민족의 자주독립의 한계이다。민주화(民主化)란 민(民)이 곧 주인(主人)이 됨을 뜻한다。주인됨이란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음을 말한다。이 명제에서 볼때 현 정권은 국민에게 직접 선거를 통해 위원부터를 선출하여 그들이 이룩한 선진력, 물질력, 조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계속 집권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취할수 있는 제반 가시적 민주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중산층의 민심을 획득, 선거를 통한 집권연장을 노리고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는 정권의 또 다른 장기집권 의도라 볼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민족과 민주의 측면에서 「6·29」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외세의 예속으로부터 민족의 자주독립의 한계이다。민주화(民主化)란 민(民)이 곧 주인(主人)이 됨을 뜻한다。주인됨이란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음을 말한다。이 명제에서 볼때 현 정권은 국민에게 직접 선거를 통해 위원부터를 선출하여 그들이 이룩한 선진력, 물질력, 조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계속 집권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취할수 있는 제반 가시적 민주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중산층의 민심을 획득, 선거를 통한 집권연장을 노리고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는 정권의 또 다른 장기집권 의도라 볼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민족과 민주의 측면에서 「6·29」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외세의 예속으로부터 민족의 자주독립의 한계이다。민주화(民主化)란 민(民)이 곧 주인(主人)이 됨을 뜻한다。주인됨이란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음을 말한다。이 명제에서 볼때 현 정권은 국민에게 직접 선거를 통해 위원부터를 선출하여 그들이 이룩한 선진력, 물질력, 조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계속 집권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취할수 있는 제반 가시적 민주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중산층의 민심을 획득, 선거를 통한 집권연장을 노리고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는 정권의 또 다른 장기집권 의도라 볼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민족과 민주의 측면에서 「6·29」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외세의 예속으로부터 민족의 자주독립의 한계이다。민주화(民主化)란 민(民)이 곧 주인(主人)이 됨을 뜻한다。주인됨이란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음을 말한다。이 명제에서 볼때 현 정권은 국민에게 직접 선거를 통해 위원부터를 선출하여 그들이 이룩한 선진력, 물질력, 조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계속 집권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취할수 있는 제반 가시적 민주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중산층의 민심을 획득, 선거를 통한 집권연장을 노리고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는 정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한킴벌리

[páentilàinərs]

깨끗한 여성을 위한것입니다.

생리가 아닌 때라도 여성에게는 늘 약간의 분비물이 있지요.
그래서 오후만 되면 벌써 팬티가 축축해지고
얼룩도 생겨 기분이 무척 불쾌해지죠.
특히 배란기, 임신전후, 피임제 사용시에는 더욱 심하답니다.
이럴 때 팬티 안쪽에 '후리덤 팬티라이너'를 살짝 붙여두세요.
그리고 하루 서너번만 갈아 주세요.
하루종일 기분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답니다.
깨끗함을 즐기는 여성이라면 다 아는 것, 다 쓰는 것—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청결대 '후리덤 팬티라이너'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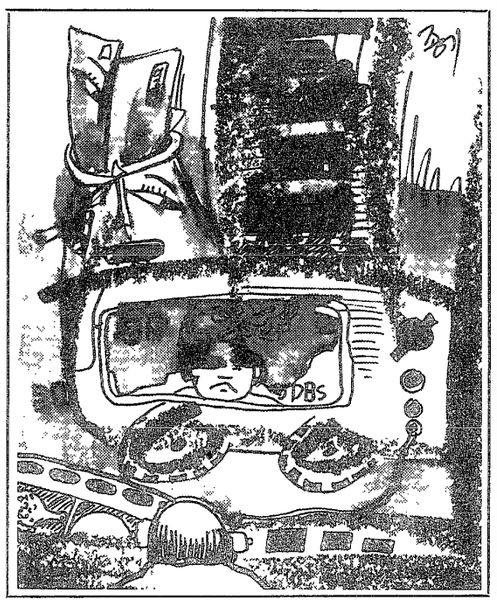
코텍스* 후리덤* 팬티라이너

*표는 미국 킴벌리·크라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REGD. TRADEMARKS KIMBERLY-CLARK CORP.,U S.A.

후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평상시, 질분비물을 흡수하여 항상 보송보송한 상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배란기, 피임제 사용시에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읍니다.
◎여행등 팬티교환이 어려울 경우에 편리합니다.
◎생리직전과 끝날무렵에 사용함으로써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읍니다.

□기획취재…최근의 언론 자유화 투쟁과 그활성화 방안

혀는 잘리워도 몸뚱이로 말하라



『언론통제를 용이하게 하라』는 말은 權力을 획득하려는 놈나, 이미 획득한 자들이 명심해야 할 필수항목으로 여겨진다。이는 권력형태가 왜곡될수록, 즉 권력남용이 심해질수록 한층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우리의 言論史가 이러한 전철로 얼룩져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이에 맞선 기자들의 투쟁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던것이다。특히 최근 그 모순이 첨예화되어가는 現언론상황에 등분, 자유언론쟁취를 천명하는 기자들의 투쟁이 잇달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本稿에서는 최근의 언론자유수호투쟁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보도지침은 民衆의「알權利」유린

「언론정화」명목아래 무더기 해직 이루어져 탄압가중

1、

6月의 민주화대행진에서 확인된 民衆의 民主化열기에 놀란 現정권은「6·29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국국면의 완화를 꾀하고자 하였다。그러나「6·29선언」과 이를 통한 각종 민주화 실천방안들은 민중의 생존권보장과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제한적인 의미의 조치에 불과하였고 民主主義의 실현과제라 할 수 있는 언론의 독립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발표된「언론활성화 방안」역시 언론통폐합의 소산인 독점적 공영방송 체제의 존속과 言論統制的 질서의 온존으로 완전한 自由言論에 미흡한 하나의 미봉책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간과할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언론은 기업과 권력에 구조적으로 유착·종속되어 통치권력에 복합된 제도언론으로서 民衆들의「알權利」를 유린해왔다。이러한 제도언론의 가장 큰 특징의 형성은 72년말의 유신이후 부터로, 유신체제로 편입된 제도언론은 사회적 公器로서 언론의 제기능을 포기한 채 체제유지와 정권홍보기능만을 담당해왔던 것이다。특히 제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언론정책의 모순이 더욱 심화, 現체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력의 민중탄압에 앞장서고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결과를 창출해낸 주범은 지난 80년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정치적 격동기에 단행된「언론통폐합」과 그에 따른 각종 악법조치임은 새삼 재론할 여지가 없다。

평정권은 지난 80년11월에 신아일보, 동아방송, 동양통신, 내외경제 등 전국의 총 64개 신문·방송·통신사를 23개로 통폐합시키고 지방의 국제신문, 영남일보등을 폐간하는 등의 언론통폐합조치를 단행했다。또한 80년 7, 8월에 걸쳐서는「언론정화」라는 명목으로 7백여명에 이르는 언론인을 강제해직시킨데 이어 12월26일에는 몰론 80년 12월26일에는 등록취소조항, 주의·의무조항, 책임편집제조항등의 독소조항을 골자로 하는 反民主的인「言論基本法」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분공부내에 홍보정책실이라는 여압장치를 마련, 언론에 대한 탄압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반민중적 제도언론에 대항하여 그동안「알權利」,「말할權利」를 주장하는 많은 언론인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을뿐아니라 최근에는 민주화바람에 편승하여 각 언론사의 기자, PD등의 언론인들이 잇달아 성명을 발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것을 결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것이다。

2、

각 언론사의 언론인들에의한 언론자유수호결의는 지난5월18일 서울신문기자들의 「서울신문 발전을위한 우리의 주장」을 필두로하여 동아일보·MBC, KBS등 전국 26개 언론사에서 現시국과 언론상황에 대한 견해표명과 함께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신문분야의 언론활성화 투쟁과 그 활성방안

신문제작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탄압은 언론기본법에 의한 법적규제와「보도지침」등을 통한 협조요청이다。「본도지침」은 문화공보부內「홍보정책실」에서 각 신문사로 운필히 하달되는 것으로서 일련의 사건들을「可」「不可」「절대不可」등의 용어를 사용, 기사의 내용이나 제목, 위치, 사건의 크기나 배치등을 구체적으로 결정, 시달한다。이러한 언론조작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정책실은 80년언론통폐합에 따라 문화공보부內에 신설되어 언론통제의 구체적 실무작업을 주로 맡아왔다。이 밖에도 경제적인 수단을 통한 압력, 기관원의 配內총무, 언론인 연행·협박, 협조요청등의 수단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각 신문사기자들은 성명을 발표, 이러한 제악법의 철폐, 자유언론회복을 결의하였는데 지난5월18일 사장퇴진을 요구하며 결의문을 냈던 서울신문에 이어 5월25일 동아일보는「民主化를 위한 우리의 주장」을 통해 ▲4·13조치철회 ▲정부의 근원적인 언론탄압 철폐와 全언론인의 각성 ▲보도지침과 관련, 재판계류중인 전·현직 언론인들의 석방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한국일보는 5월29일에「현 언론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경향신문은 6월22일에 결의문을 발표,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사실보도를 외면해 온 제도권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최근 이 땅의 고절화된 제도언론의 절곡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한 독자의 성언이며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다』는 내용의 일장을 표명하였다。이밖에도 부산일보(6월5일)、코리아타임즈(6월8일)、대구매일신문(6월12일)、한국경제신문(7월17일)、광주일보(7월22일)、전북일보(8월4일) 등의 성명이 잇따랐으며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이러한 일선기자들의 성명및 언론현안과 관련, 7월16일에 ▲최근 일선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결의의 전폭적지지 ▲언기법 프레스카드제의 폐지와 주재기자제 부활, 증면등의 조속한 시행, ▲언론자유의 확고한 제도적 장치마련 ▲해직언론인의 조속한 복직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렇듯 각 언론인들이 스스로 권력의 侍女임을 거부하고 참다운 자유언론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부패한 언론의 희생을 통한 민주화실현의 꿀을투쟁에 동참하기위한 뼈아픈 각인으로 여겨지며 全 언론인들의 철저한 각성을 통한 변혁으로서의 실천적투쟁이 요구된다하겠다。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되기위해 끝까지 투쟁중인「民主言論」을 선언하면서 ▲공영방송체제의 철폐 ▲관선경영진의 즉각퇴진 ▲기관원의 사내출입 전면금지 ▲해직기자들의 전원복직등을 요구하였다。이에따라 요구의 관철을 위해 7월16일 오전10시부터 24시간 제작거부에 돌입하였다。7월14일에는 MBC프로듀서들이「방송민주화를위한 우리의결의」를 채택하여 ▲정부용보성 프로그램의 즉각중지 ▲프로그램 소재에대한 검열및 제약철회 ▲자율적인 PD협의 결성의 보장등을 요구했다。

이어서도 MBC 방송기술인, 아나운서등도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7월16일에는 MBC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인등으로 이루어진 방송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 『과거 온갖 불의와 타성으로 점철되어온 우리의 자세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참된 방송이 되기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을 다시한번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KBS기자들도 7월16일에 『그간 순치된 사고에 함몰돼 외부의 간섭을 수용하는등으로 우리의 고유영역을 지키지 못했고 또 제나 국민편에 서야한다는 당위성을 출족시키지 못했음을 자성하며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이어 부산MBC (6월22일)、청주MBC (7월16일)、마산MBC(7월16일)、대구MBC (7월20일) 등 각 지역방송사들의 성명이 잇따랐고 특히 광주MBC는 7월20일, 보도국기자와 열부직사원1백16명이 언론민주화선언을 발표하면서 7월21일 사장의 퇴진과 언론민주화를 요구하며 전면 제작거부에 돌입, 라디오와 TV지방뉴스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CBS는 언론통폐합이후에 보도와 광고기능이 차단되어 현재까지 「CBS기능정상화 1백만인 서명운동」등을 비롯 청원서 제출등 기능정상화 추진에 주력하고있다。

기독교방송은 1954년 12월에 「전도와 음악」을 방송하기내방송으로 출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창립한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민주주의의 요체로서의 언론은 이제 더이상 「가물르다는 질서」를 내세우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묵여 정권의 하수인이나 소수권력층의 제유지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언론은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 서 민중의 편에 서야하고 또한 민중언론의 구조적 모순의 혁파와 함께 광범위한 계층의 민중들이 편협운동에 참여하여야하며, 現제도언론을 규정짓고 있는 구조적 개편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3、

87년7월6일에는 기독교방송직원들이「CBS기능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통해 ▲언기법폐기 ▲전파관리법상의 각종 독소조항 삭제 ▲CBS에 대한 제한조치 철폐등을 천명하였으며 8월11일에는 ▲CBS뉴스와 광고부활 ▲해직언론인의 복직 ▲민영방송 부활 ▲CBS뉴스의 정당의 기간적 언론활성화, 방안의 철회와 공개사과문의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이에대하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서는 지난 8월13일에 CBS부활을 지지하는 지성명을 발표, CBS의 기능정상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CBS측은 기능정상화의 요구가 9월15일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즉각 정규뉴스방송을 재개하는 것과 3월가두의 철야기도를 결의하면서 지난 8월15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예고없이 6분30초간 뉴스를 방송하기도 하였다。그 이상에서 방송하는 그 같은 방송민주화의 물결을 살펴보았듯이 더이상 국민들이 외면하고 거부하는 방송이 아닌 참다운 言論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言論基本法과 제반 악법의 폐지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작·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행정부의 관할아래 놓여져있는 KBS등 공영방송의 각종 권한들의 개편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방송공사 법률의 관계법에 의하면 사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며 이사 또한 문화공보장관이 임명하게 되어있다。뿐만아니라 KBS가 MBC의 70%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실상 MBC도 국책적 관영방송이나 다름이 없다。따라서 이러한 체제개편은 불가피하며 민영방송의 운영도 재개되어야한다。

이밖에도 현재 시청료징수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공영방송의 광고기능, CBS의 보도와 광고기능의 정상화등 방송매체가 갖고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겠다。

言基法·홍보정책실은 폐지돼야

해직기자 복직과 언론의 민중소유가 선행과제

한편 KBS의 모든 인사권과 경영권등의 권한이 행정부의 관할하에 놓여져 있어 정권의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관영체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획일적、편파적으로 정권에 예속되어온 방송언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이 표출, 1985년에는 여성단체연합 주도로 「시청료거부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고 86년 4월에는 「KBS-TV를 보지 않습니다」라는 표어아래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또한 방송사內에서는 언론인들의 새로운 각성주에 언론의 민주화 쟁취라는 실천적 차원의 방송민주화 투쟁이 전개된다。

우선 지난 7월13일에 MBC 보도국기자들은「방송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통해『공정한보도 국기 6·29선언」식의 민주화대행진에서 확인된 民衆의 民主化열기에 놀란 現정권은「6·29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국국면의 완화를 꾀하고자 하였다。그러나「6·29선언」과 이를 통한 각종 민주화 실천방안들은 민중의 생존권보장과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제한적인 의미의 조치에 불과하였고 民主主義의 실현과제라 할 수 있는 언론의 독립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발표된「언론활성화 방안」역시 언론통폐합의 소산인 독점적 공영방송 체제의 존속과 言論統制的 질서의 온존으로 완전한 自由言論에 미흡한 하나의 미봉책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간과할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언론은 기업과 권력에 구조적으로 유착·종속되어 통치권력에 복합된 제도언론으로서 民衆들의「알權利」를 유린해왔다。이러한 제도언론의 가장 큰 특징의 형성은 72년말의 유신이후 부터로, 유신체제로 편입된 제도언론은 사회적 公器로서 언론의 제기능을 포기한 채 체제유지와 정권홍보기능만을 담당해왔던 것이다。특히 제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언론정책의 모순이 더욱 심화, 現체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력의 민중탄압에 앞장서고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결과를 창출해낸 주범은 지난 80년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정치적 격동기에 단행된「언론통폐합」과 그에 따른 각종 악법조치임은 새삼 재론할 여지가 없다。

평정권은 지난 80년11월에 신아일보, 동아방송, 동양통신, 내외경제 등 전국의 총 64개 신문·방송·통신사를 23개로 통폐합시키고 지방의 국제신문, 영남일보등을 폐간하는 등의 언론통폐합조치를 단행했다。또한 80년 7, 8월에 걸쳐서는「언론정화」라는 명목으로 7백여명에 이르는 언론인을 강제해직시킨데 이어 12월26일에는 몰론 80년 12월26일에는 등록취소조항, 주의·의무조항, 책임편집제조항등의 독소조항을 골자로 하는 反民主的인「言論基本法」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분공부내에 홍보정책실이라는 여압장치를 마련, 언론에 대한 탄압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반민중적 제도언론에 대항하여 그동안「알權利」,「말할權利」를 주장하는 많은 언론인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을뿐아니라 최근에는 민주화바람에 편승하여 각 언론사의 기자, PD등의 언론인들이 잇달아 성명을 발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것을 결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것이다。

2、

각 언론사의 언론인들에의한 언론자유수호결의는 지난5월18일 서울신문기자들의 「서울신문 발전을위한 우리의 주장」을 필두로하여 동아일보·MBC, KBS등 전국 26개 언론사에서 現시국과 언론상황에 대한 견해표명과 함께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신문분야의 언론활성화 투쟁과 그 활성방안

신문제작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탄압은 언론기본법에 의한 법적규제와「보도지침」등을 통한 협조요청이다。「본도지침」은 문화공보부內「홍보정책실」에서 각 신문사로 운필히 하달되는 것으로서 일련의 사건들을「可」「不可」「절대不可」등의 용어를 사용, 기사의 내용이나 제목, 위치, 사건의 크기나 배치등을 구체적으로 결정, 시달한다。이러한 언론조작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정책실은 80년언론통폐합에 따라 문화공보부內에 신설되어 언론통제의 구체적 실무작업을 주로 맡아왔다。이 밖에도 경제적인 수단을 통한 압력, 기관원의 配內총무, 언론인 연행·협박, 협조요청등의 수단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각 신문사기자들은 성명을 발표, 이러한 제악법의 철폐, 자유언론회복을 결의하였는데 지난5월18일 사장퇴진을 요구하며 결의문을 냈던 서울신문에 이어 5월25일 동아일보는「民主化를 위한 우리의 주장」을 통해 ▲4·13조치철회 ▲정부의 근원적인 언론탄압 철폐와 全언론인의 각성 ▲보도지침과 관련, 재판계류중인 전·현직 언론인들의 석방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한국일보는 5월29일에「현 언론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경향신문은 6월22일에 결의문을 발표,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사실보도를 외면해 온 제도권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최근 이 땅의 고절화된 제도언론의 절곡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한 독자의 성언이며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다』는 내용의 일장을 표명하였다。이밖에도 부산일보(6월5일)、코리아타임즈(6월8일)、대구매일신문(6월12일)、한국경제신문(7월17일)、광주일보(7월22일)、전북일보(8월4일) 등의 성명이 잇따랐으며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이러한 일선기자들의 성명및 언론현안과 관련, 7월16일에 ▲최근 일선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결의의 전폭적지지 ▲언기법 프레스카드제의 폐지와 주재기자제 부활, 증면등의 조속한 시행, ▲언론자유의 확고한 제도적 장치마련 ▲해직언론인의 조속한 복직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렇듯 각 언론인들이 스스로 권력의 侍女임을 거부하고 참다운 자유언론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부패한 언론의 희생을 통한 민주화실현의 꿀을투쟁에 동참하기위한 뼈아픈 각인으로 여겨지며 全 언론인들의 철저한 각성을 통한 변혁으로서의 실천적투쟁이 요구된다하겠다。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되기위해 끝까지 투쟁중인「民主言論」을 선언하면서 ▲공영방송체제의 철폐 ▲관선경영진의 즉각퇴진 ▲기관원의 사내출입 전면금지 ▲해직기자들의 전원복직등을 요구하였다。이에따라 요구의 관철을 위해 7월16일 오전10시부터 24시간 제작거부에 돌입하였다。7월14일에는 MBC프로듀서들이「방송민주화를위한 우리의결의」를 채택하여 ▲정부용보성 프로그램의 즉각중지 ▲프로그램 소재에대한 검열및 제약철회 ▲자율적인 PD협의 결성의 보장등을 요구했다。

이어서도 MBC 방송기술인, 아나운서등도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7월16일에는 MBC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인등으로 이루어진 방송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 『과거 온갖 불의와 타성으로 점철되어온 우리의 자세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참된 방송이 되기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을 다시한번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KBS기자들도 7월16일에 『그간 순치된 사고에 함몰돼 외부의 간섭을 수용하는등으로 우리의 고유영역을 지키지 못했고 또 제나 국민편에 서야한다는 당위성을 출족시키지 못했음을 자성하며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이어 부산MBC (6월22일)、청주MBC (7월16일)、마산MBC(7월16일)、대구MBC (7월20일) 등 각 지역방송사들의 성명이 잇따랐고 특히 광주MBC는 7월20일, 보도국기자와 열부직사원1백16명이 언론민주화선언을 발표하면서 7월21일 사장의 퇴진과 언론민주화를 요구하며 전면 제작거부에 돌입, 라디오와 TV지방뉴스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CBS는 언론통폐합이후에 보도와 광고기능이 차단되어 현재까지 「CBS기능정상화 1백만인 서명운동」등을 비롯 청원서 제출등 기능정상화 추진에 주력하고있다。

기독교방송은 1954년 12월에 「전도와 음악」을 방송하기내방송으로 출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창립한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민주주의의 요체로서의 언론은 이제 더이상 「가물르다는 질서」를 내세우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묵여 정권의 하수인이나 소수권력층의 제유지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언론은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 서 민중의 편에 서야하고 또한 민중언론의 구조적 모순의 혁파와 함께 광범위한 계층의 민중들이 편협운동에 참여하여야하며, 現제도언론을 규정짓고 있는 구조적 개편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단지 일기종법적인 작주책으로 민중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해직언론인 복직과 민중언론 창달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민중언론의 창달을 위해서는 언론기관의 소유형태가 민중들이 참여하는 체제로 이루어져야한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자유보장, 중언론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사민회의 구조적 모순의 혁파와 함께 광범위한 계층의 민중들이 편협운동에 참여하여야하며, 現제도언론을 규정짓고 있는 구조적 개편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남 정 령 記者
지 희 현 記者

● 뜻모아 하나로 힘모아 세계로

롯데골든인삼맛껌에는
인삼엑기스가 들어있읍니다

인삼의 맛을 껌으로 즐긴다!
인삼 엑기스를 넣어 만든 골든 인삼맛껌은
대한민국 전매청 허가품입니다.
입안이 텁텁할 땐 골든 인삼맛껌을 씹으세요.
인삼 엑기스의 쌉쌀한 맛에
입안이 개운해지고 기분마저 상쾌해집니다.

롯데제과

1930年代 조선공산당과 신간회활동

1、문제의 제기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점한 후 30여년에 걸친 식민지시대는 이 땅의 자생적 자본주의 발전을 저지하고 사회적 제 관계를 왜곡시켰다。이러한 식민지시대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방식에 질중되어옴으로써 일제가 추체로 서술되고 이 땅의 민중들은 단지 피지배자로 전락되어 버렸다。그러나 최근의 식민지시대에 관한 연구경향은 일제의 강압적 지배에 대항한 조선 민중의 저항、즉 민족해방투쟁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왜곡된 사회발전의 길을 바로 잡으려는 민중의 저항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은 크게 민족주의자들에게 주도권이 있던 민족주의자들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나뉘어 발전하였다。이 두 민족운동은 1926년 6·10만세사건을 계기로 민족협동전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27년 신간회를 결성하여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하여 일제에 대항하였다。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온당치 않다고 본다。민족주의자들이 미족운동을 강조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족주의자들 중의 상당수는 민족개량주의·자치론·참정론 등으로 투항하였다。또한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단계에 맞지않게 계급투쟁을 강조했다는 평가도 악의적인 것이라 보인다。조선 공산당(이하 조·공으로 약함) 창설 초기에서부터 사회주의자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민족협동전선」을 결성하였으며 민족부르조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즉 식민지시대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고、그에따른 민족협동전선) 설립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상황인식에 대해 살펴본 후、신간회창립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2、조선공산당의 창설과 활동

1925년 4월 17일 조선 최초의 정위당、즉 조선 공산당이 창설되었다。

당시 조선은 산미증식계획·일본독점자본의 진출등으로 농민층분해가 가속화되고、지주와 소작인 간의 대립은 첨예화되며、농촌에서 창출된 상대적 과잉구에 의해 농촌조건이 열악화되는등 민중의 생활은 극도로 악화되었다。당시 일제는 지주를 연합세력으로하여 농촌을 수탈기지로 삼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농촌에 광범위하게 잔존하던 봉건적 유제를 청산하는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할 수 있었다。또한 봉건유제는 일제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제·반(反) 봉건의과제는 필연적으로 결합되지 않을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혁명과제는 제국주의 타도와 자본주의의 점상적발전을 저지한 봉건적 제 요소(토지문제)를 일소하기 위한「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BDR)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출현한 제1차 조·공은 화요파·북풍회·서울파 등의 분파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져버리게된다。2차조·공은 민족협동전선을 결성을 위해 부르조아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을 내걸지만 6·10만세사건으로 말미암아 2차조·공이 해체됨으로 해서 실현되지못했다。그러나 이를 계기로 하여 정우회가 발족이 되며、이는 신간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1·2차 조공 당원의 대량검거로 1·2차 조공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화요회계는 거의 전멸상태에 빠지게 되었다。이 과정에서 종래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중심이되어 1926년9월2일 제3차 조공이 결성되었다。(통일공산당) 또는 「M·L당」이라고도 불린) 3차 조공은 조선노동총동맹을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립하고、조선청년총동맹을 재건 강화、신간회、근우회결성、지방조직을 강화하는 등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1928년2월 검거되어 그 활동이 위축된다。

그러나 M·L당의 활동중 특히 봉건전선을 둘러싼 논쟁은 이들의 상황인식 수준이 초기의 조잡한 인식에서 (계급지상주의) 한단계 나아가 민족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M·L파의 지도자격인 한위건은 통일전선에 관하여、통일전선은 일본의 감시하에 자치를 얻어내고、지주와의 투쟁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이는 이전의 운동과는 달리 합총 실화된 현실인식이 4차 조·공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단적인 증거라 하겠다。더구나 「신간회는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의 현단계에 조응할 혁명적 계층의 특수한 동맹체」라 하면서 「유력한 일적 대중단체로 될 필연성과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이 조직 속에 들어가 투쟁을 지도하고 대중운동으로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한 것은 이들이 민족문제에 대해 갖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를 BDR단계로 본것은 반제·반(反) 봉건 민족해방투쟁의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였다는 증거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인식의 이면에는 파벌간의 투쟁이 심화되고있었다。분파투쟁으로 인해 프락치의 활동을 제공하였으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수 없게됨으로해서 조·공은 해산되는것이다。

이와 관계되는 것으로 조·공의 계급적 기반이 인텔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노동자·농민의 대중적 조직체에 그 기반을 갖지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식민지상태에서 새로운 이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은 일반 농민·노동자들에게는 생각도 할 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연합전선」의 약·소적한 계를 극복·지양하는 방식으로의 해소운동이 아닌 해소 그자체에 머물게 됨으로써 비타협적 (전투적) 민족주의세력의 상당부분을 잃었고、합법공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30년대 이후에는 비합법적색노조·농조의 형태로 민족해방운동의 폭이 좁아들게 되었다。

4、맺음말

지금까지 조·공의 활동을 주로 신간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였고、그에따른 민족협동전선) 설립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상황인식에 대해 살펴본 후、신간회창립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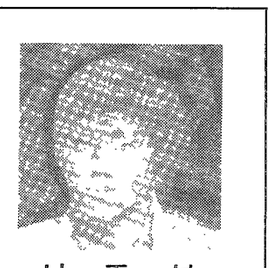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즉 식민지시대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고、그에따른 민족협동전선) 설립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상황인식에 대해 살펴본 후、신간회창립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상황인식에 대해 살펴본 후、신간회창립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 주 성
<대학원 석사과정·사회학과>

1930년대 제운동세력의 활동을 살피는것은 해방전후의 정국을 알수있고 그이후 우리역사의 평가를 내리는 데있어 커다란 도움이 될수있다。이글에서는 1930년대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신간회를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한다。<편집자註>



반제·반봉건사상이 당시 변혁이론

분파투쟁은 조·공활동에 결정적 타격주어

신간회를 민족 단일정당의 매개체로 인식

박헌영(좌) 여운형(우)

김구선생 (中)

3、신간회의 창설과 논쟁의 전개

1926년 4월에 발족한 정우회(조공의 합법적 사상단체)는 당시의 상황이 일제의 집회금지 조치로 인한 운동의 위축과、민족주의 적운동의 공공연한 대두등 공산주의운동을 부진한 상태에 빠뜨리게 한다는 인식하에 11월「정우회선언」을 발표하여 「단일 정치전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상단체의 해체와 해방운동에의 전환을 이론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민족해방운동의 실천방향이나 전망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안한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패하였다。

전진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27년 1월19일 신간회가 결성되었다。신간회 결성당시 조·공의 기본시각은 총체적 무산계급분에 입각한 피압박계급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신간회를 「민족단일정당」의 매개형태로 보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은、식민지 민족은 누구이던 간에 피압박계급이고、따라서 반제연합전선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것이다。전진회는 기본적으로는 협동전선의 결성에는 동의하지만 무산계급의 자립장을 강조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자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다。이러한 입장은 앞서 서술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무산계급의 단일기관으로 상설하자는 뭔立論으로 연결되었다。

「중앙협의회」 상설론은 세력에 밀려 패배하지만 이들의 문제제기는 「협동전선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그영향은 M·L파 내부에서도 제기되어、일월회의 일부와 M·L파의 주도자중 한사람인 안광천등은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 프르조아지의 지도성을 부인함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M·L파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성에 관해 투쟁한 이론적 입장은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원칙만을 되풀이 했을 뿐이었다。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에 관한 문제는 신간회에대해 「민족단일정당」이라는 시각으로부터 「민족협동전선론」으로 인식이 달라지는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해 지는 것이다。

통일전선이 혁명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전위당이 독립된 정치적·조직적 활동을 수행하며、프롤레타리아트를 독립된 정치세력으로 조직하고、농민으로 하여금 지주를 반대하여 궐기케하며、노동자·농민의 혁명을 끊임없이 조직하고、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를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것을 이 통일전선이 발해하지 않는 경우뿐이다。

이렇게 볼때 M·L파의 활동으로 인해 통일전선이 혁명적 의의를 가지기는 커녕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성을 상실되고、조공이 노조·농조를 지도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오히려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조차 나타나 민족운동자상부의적 경향성을 띠게되었다。

그 결과 「계급표지 철거론」이라 불리는 「청산론」이 대두되는 근거가 되었으며、결국 신간회의 주도권을 민족개량주의자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장일성、厲星으로 대표되는 청산론에 대하여 살펴보자。이 일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미성숙한 조선에서는 계급투쟁의 전개는 곤란하므로 민족운동에 질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장은 민족운동에 대한 인식마저도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식민지국가에 있어서 민족모순이란 계급모순을 통해 잘용한다。그런데 계급모순을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민족운동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의문시된다。

M·L당 내에서 이러한 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되면서、김성수·이광수·최린등의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신간회에 침투하여 자치운동의 근거지로 삼으려 획책하기 시작하여、M·L당의 검거를 틀타 서울·평양지회에 들어가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조·공의 검거와 논쟁에 시달리고 있는동안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신간회 본부를 장악하였다。그러나 지방지회는 아직도 검거되지 않은 조공의 하부조직이 장악하고 있어서 중앙과 지방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등장한것이 신간회 「해소론」이다。신간회의 해소는 민족부르조아의 한계들이 명확해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합전선」의 약·소적한 계를 극복·지양하는 방식으로의 해소운동이 아닌 해소 그자체에 머물게 됨으로써 비타협적 (전투적) 민족주의세력의 상당부분을 잃었고、합법공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30년대 이후에는 비합법적색노조·농조의 형태로 민족해방운동의 폭이 좁아들게 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은 무원칙한 연합전선으로 실패

泰昌企業株式會社
TCE TAECHANG ENTERPRISE CO., LTD.

입을수록 자유롭고 활동적인
태창기업 캐쥬얼복지

태창기업이 생산하는 원단의 종류

DENIM/데님
1970년대 초반 국내최초로 인디고 데님이 개발 생산에 성공하면서부터 의복은 말할것도 없으며 신발, 완구, 가방류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광범위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연제, 어떤 장소에서나 즐기업을 수 있는 전천후 복지로서 가히 민적물의 왕으로 군림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무주한 연구 개발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가공 데님
인디고 스트라이프데님, 엠보싱데님, 클링 클데님 칼라스트라이프데님, 스노우데님 프린트데님

CORDUROY/골덴
1956년 당사가 국내최초로 생산하여 그 품질의 우수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계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순 면직물로서 통기성, 흡습성이 좋아 계절에 관계없이 즐기업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정통골덴
일반적인 골덴으로 1인치당 4골의 태(太) 골덴으로부터 21골의 세(細)골덴까지 50여 종류가 있읍니다.
□변형골덴
Fancy 골덴, 요철골덴, Ribless 골덴 Polyester Cotton Blend 골덴 Print 골덴

VELVEEN/우단
골덴과 동시대에 개발된 우단은 생산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운 반면에 제품이 우아하고 화려한 멋을 풍기기 때문에 "직물의 예술품"이라고 불리웁니다.
중세이후 구미 각국에서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기품이 넘치는 확실 의상과 고급 내부장식 소재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직물의 독특한 외관과 감촉은 고급 여성복 소재 및 실내장식용으로 적합한 소재입니다.

ESPUN/에스판
태창기업(주)의 축적된 기술력에 의해 국내 최초로 순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개발품인 상하좌우의 고신축성 활동 복지로서 신축이상 상하좌우로 되어 어떠한 행동이나 작세에서도 구김이 잘 가지 않고 본래의 산뜻한 색상과 원래의 그 맵시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신뜻한 사용감에 기능성, 취등성 또한 높아 발달한 행동파 젊은이들에게 더욱 좋은 복지입니다.
에스판 생산품목
에스판 골덴 칼라데님 인디고 데님
에스판프린트 골덴 칼라데님 인디고 데님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쥬얼웨어의 80%가
태창기업 버펄로 원단입니다.
SS패션, 반도패션, 코오롱, 톰보이, 뱅뱅등 국내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쥬얼웨어와 봉제수출업체의 대부분이 저희 '버펄로' 원단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세계적인 상표들과 어깨를 겨루는한국의 캐쥬얼웨어들이 굳이'버펄로'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뛰어난 품질과 아름다운 색상으로 젊은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콧튼마크가 순면 100%의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전기고 부드러운 캐쥬얼복지 '버펄로'는 내한방직협회가 100% 순면제품임을 보장하는 콧튼마크 제품으로 그 뛰어난 품질이 저탕입니다
순면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은 물론, 입을수록 애착이 가는 신뜻한 색상과 흡습성, 통기성, 방풍성이 뛰어나고 값또한 싸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제 장소에서 입어도 멋이있는 경세적 취등복지입니다.

COTTON MARK
우람 인식표를 발합합니다.
대한방직협회

"앞으로의 사회는 自由·平等을 包越하는 창조민주주의 체제이다"

宇宙時代의 政治科學

近代에 들어서면서 政治學은 대중의 정치적동향을 기계론적으로 계량해서 그 동향을 政治人과 財閥에게 제공하는 侍女的인 기술과학, 이른바 정치행태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本稿에서는 문화진화학에 입각하여 現정치학의 모순을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과학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지면의 한계성으로 인해 그폿들만을 간략하게 게재했음을 밝힌다. 〈편집자註〉

權允赫 〈법경대특별대우교수 정치외교학〉

Ⅰ、政治行態學의 한계

政治學은 실로 農耕文化의 創造와 더불어 인류문화사에 있어서 가장 일찌기 硏硏되기 시작한 學問이다. 人類가 농경문화를 創造한 농경문화사회, 그리고 그 組織體로서의 國家를 창건하는데 있어서 그 國家社會의 骨組를 창조적으로 建造한 理論은 바로 정치학이였다. 그러므로 독일의 부록크할트가 말한 바와 같이 유럽의 르네상스時代에 있어서는 그처럼 창조적으로 건조된 國家를 하나의 警備品으로 간주하였고 정치인을 예술가로 보았으며 정치활동을 기술적인 예술활동에 비교했던 것이다.

그처럼 예술에 비길수 있는 政治學을 비창조적으로 또한 비예술적으로 즉 기계론적으로 平板化한것은 유럽 근대의 이른바 實證的인 과학주의였다. 근대의 과학주의는 창조적인 정치활동에있어서 필수적인 기초가되고있는 현이상학과 창조논리를 그 정치과학에서 배제하고 閉出하여 그대신 表層的이고 피부표면적인 社會心理學에 입각하여 대중의 정치적 동향을 정치인과 재벌에게 제공하는 시녀적인 기술과학, 이른바 정치행태학으로 전락한것이다. 그와 같은 정치행태학의 學風은 독일에있어 근대사회과학의 거벽인 막스베버에서 발되어서 그 제자인 파슨스가 미국에 건너가서 전파하였는데 그같은 학풍을 이어받았으며, 또한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왓슨같은 심리학에 입각하여 美國의 메리엄, 벤트레이, 이스턴 알몬드등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 같은 정치행태학을 완성했던것이다.

그러나 補助的 技術科學에지나지 않는 政治行態學은 바로 그 限界를 드러냈으니 1969年 그같은 政治行態學을 이른바 體系理論으로서 대설한 이스턴이 정치과학은 포스트 비헤비이럴리즘, 즉 政治學은 행태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것을 美國 政治學會 회장으로서 선언했던 것이다.

Ⅱ、정치사회체제의 建造樣相

政治科學은 변두리의 행태주의같은 技術科學의 영역을 맴돌지 말고 그 본래의 핵심적인 中心問題를 해결하는 과학적 自然科學과 더불어 科學技術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1차 産業革命이 일어났으니英國에 있어서 18세기 후반기중기기관의 動力이 개발되어 기차, 기선, 그리고 기계화된 工場制産業의 공업문화가 혁명적으로 이룩되었는데 그것이 제1차 産業革命이였다. 제2차 産業革命은 美國이 그 주도적 국가로 부상하였지만 19세기 후반에 石油의 이른바內燃機關에 의한 動力化, 그리고 水力 기타 動力의 電氣化, 그같은 새로운 動力과 더불어자동차, 항공기및 거대한 자본시설의 重化學工業의 발전으로이어지는 産業革命인 것이다.

그러한 제1차, 제2차 산업혁명을 수행할 정치사회체제는 중세의 봉건적인 정치사회체제를 혁명적으로 폐기하고 근대적인 정치사회체제를 창조적으로 건조해야 한다는것이 필수적인 요청으로 부상되었던 것이다. 그같은 역사적인 요청에 호응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치사회체제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정치학이 바로 존 로크, 루소, 몽테스퀴유등의 사회과학이었던 것이며, 또한 그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정립하여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등의 공산주의 정치사상이 이룩되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20세기 말엽에서 시작되어 21세기에 이르러 本格化될 제3차 産業革命은 이른바 첨단과학기술의 기초이론인 4차원의 물리학,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그리고 프랑스에서 시발되는 素粒子物理學인 양자역학에서 실용화로 발전된 고차원의 새로운 과학적 지성에 입각하여 이 창조논리적 지성에 입각하여 이론화되는 그러한 정치과학인 것이다.

뉴우턴을 典型으로 하는 近代의 3次元物理學의 과학논리는 그같은 4차원의 新物理學에 의하여 혁명적으로 전복되었는데, 막스·베버에서 시발되고 行態主義 政治科學으로 전개된 近代의 정치과학이 뉴우턴 物理學的인 近代的인 과학논리의 基調위에 입각한 政治科學이라면 우주시대의 새로운 政治科學은 4차원의 新物理學에서 발견된 高次元의 科學的 지성의 基調위에서 理論화되는 정치과학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4차원 新物理學이 뉴우턴의 古典物理學을 전복한 물리학이라 한다면 高次元의우주시대의 정치과학은 막스·베버이래의 近代的인 社會科學을 전복하고 超越하여 自然科學과

문제時代 문제作家

○…이번 기획과정에서 선정한 6人의 詩人 이외에도 80년대에 들어 문학활동을 활발히 하는 작가中, 그들의문학성향을 논의의 대상으로 충분히 삼지못한 아쉬움이 없지않다。이에 이 기획의 뒤를 이은 자리마련으로 나머지 작가들을 만나보는 계기의 場을 기약해본다。<편집자註>

「혼란/다양성」, 「참여/순수」

"80년대 詩의 내재적 평가작업을 통한 다양한 심화과정속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

80년대가 채 가기도 전, 아니 십지어 80년도 벽두가 지나면서부터 바로 「80년대는 詩의 시대인가」라는, 어찌보면 시기적으로 온당치 못한 물음과 반성의 작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그만큼 대한민국 개국 이래 그 어느 시기보다도 문학(크게는 예술전반)에 있어서 詩가 차지하는 영역과 생산량은 엄청난 것이었고, 또한 詩가 문학의 가장 중심부를 점유하게 된 연유에서였다。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80년대 시」에 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같다。그 하나는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혼란」과, 둘째로 「다양성」이라는 긍정적 관점으로 <혼란/다양성>이라는 대립의 형질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두 대립 형질 <혼란/다양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면 <참여/순수>라는 고전적 문학관의 대립형질의연장선상으로 파악되어진다。「혼란」의 주장은 사회전반의총체적 혼란으로인해, 발전되고 일관성있는 태도의 문학관형성이 저해되어 난잡하기 짝이없는 상황의 영향이라는것이고 「다양성」은 시민계층의 확대와 詩人 각자의 독특한 목소리의 발성등을 들어 긍정성을 앞세우는데, 이것은 <참여/순수>가 지양된 <삶=문학>의 70년대의 이론적 천착이 더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직되는 현상을 빚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他장르가 의적 상황의 억압으로 인해 제자리 머무를 혹은 위축되어, 양적 팽창만 가져오고 질적 심화가 안된, 내적 빈약성을 면키 어려운 詩장르의 융성을 일컬어 <시의 시대>라는 말을 나오게한 80년대의 문학상황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80년대는 시의 시대인가」 요약)라는 성민엽씨의 지적은 그가 말했듯 「詩활동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은 문학 상황을 위한 층정에서 나왔고 논지의 타당성이 획득되었을지라도 <80년대 詩>가 거둔 詩가 자체 내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시점에 우리에게 확실히 요청되는 것은 詩 자체 내의 분석을 통한 「80년대 시」의 편견 없는 정확한 평가이다。물론 문학활동이라는것이 주변과의 상호교류 없이 단독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80년대에서 詩가 질적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엄청난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는 데에는 누구에게나 부정의 여지가 없으므로 詩의 재로 바꾸어 다양성의 지평에 개별 문학작품이 자신들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는지를 검토하므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방향으로 몰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물론 「다양성」을 선택한 필자들의 「80년대 시」에 대한 애정과 긍정적 일장 표명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필자들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친후 80년대에 있어서 왕성한 작업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스스로의 세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는 여섯 시인을 우리 작업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여섯 시인은 <이하석> <이성복> <최승자> <황지우> <김정환> <김용택>이다。그런데 이들이 우리작업의 대상인 하나의 시인群으로 묶일수 있는 것은 「다양성」 외에는 별다른 방법을 발견하기가 힘들다。언듯보기에 (자세히 살피더라도) 이들 시인들이 공동시인群으로 묶이기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에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기로 한다。

실제로 이들중 몇은 이미 70년대의 후반에 그들 시의 세계를 인정받았고 70년대의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이 다만 「다양성」이라는 의미 없는, 논거가상실된 범주밖에 없는것은 아니다。그들은 詩作의 경력에 있어서의 차이는 보일지라도 80년대에 들어 시집을 출간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일수 있다。시작은 전 시대인 70년대에 시작했을지라도, 시 한편 한편이 가진 단편성을 극복할수 있는 총체적 성격의 시집이 80년대에 출간된 것은 이들 시인을 동시대로 묶을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80년대에 들어 더욱 활발한 시작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권이상의 시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 가능한 충분한 양의 작품이 축적되어 우리 작업의 대상으로 묶기에 별무리가 없다는것이 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필자들이 묶은 이 여섯시인이 물론 80년대를 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절대우위의 시인群은 아니다。다만 이들의 시가 상대적으로 80년대 현실의 모순점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고 스스로의 독특한 목소리로 여타시인의 詩와 자신의 詩를 가름짓는 방법론적 새로움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들이 예술은 성숙한 상태라는 유치한 이상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詩的自我를 고통증에 놓음으로서 현실과 타협 않겠다는 치열한 대결의식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가능태로서의 세계 비전을 전망하기 때문이다。

「80년대 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의의는 산업화의 절정에 놓여있는 시대로서, 첫째 비인간적 도시의 콘크리트 언어가 70년대이후로 등장, 둘째 인간 소외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며 이것의 시적수용이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고, 셋째 시인계층의 확산과 경험적 세계의 보다 구체적 시적수용으로 노동자 시인과 농촌시인이 자기생활터전 가운데 정착된 시를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끝으로 70년대에 이룩한 <삶=문학>이라는 대명제가, 어설픈 순수시나 목소리만 크고 경직된 민중시가 극복된, 진정으로 지상에 그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의 생산 (혹은 실천적 창작행위) 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할 시기가 바로 80년대인 것이다。

이렇듯 확산된 詩의식과시인 각자의 변별적 자기세계 구축으로 「다양성」과 그 「실화과정」이 80년대 詩의 특징이라는 판단아래 앞의 여섯 시인의 시를 분석함으로서 80년대 시의 「다양성」이 다만 난잡한 「혼란」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깊이로 심화되었느냐를 우리 필자들은 독자들과 함께 추적하고자한다。

강서중 <시인·국문과>

◇글싣는 차례

1. 머릿말
2. 이하석論
3. 이성복論
4. 최승자論
5. 황지우論
6. 김정환論
7. 김용택論
8. 연재를 마치며 (좌담)

시국사범 제적 林鍾雲군

『터지고야 말것이 기어코 터지고 말았구나!』라고 朴종철군사건을 처음 접했을당시의 심정을 밝히는 林鍾雲(산업공·3년제적)군。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지난 달 8일 자유의 몸이 된 林군을 만나보았을때의 첫 인상은 민정당연수원 점거·방화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이 의심이 갈 정도로 평범하다는데 놀랐다。

『現체제를 전면 거부하고 파쇼헌법철폐를 주장해오던 터라 現정권의 모순된 하부기구에의한 재판의 부당성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거부를 했읍니다』라고 재판및 항소를 거부했던 이유를 밝힌 그는 (前삼민통헌부위원장) 감방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무엇보다 무고한 사람을 가둬놓는 처사부터가 非인간적이지만 온갖 고문과 부당처사가 난무하는 감방생활은 모든 범죄와 부정부패의 온상입니다』

서신검열및 서적류제한, 면회제한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世上과 차단시키려해도 世上소식을 소상히 알 수 있었다는 林군은 이렇게 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설명한다。『지난해 9월이였죠。교도소내 모든 양심수들이 단식을 하는등의 투쟁으로 우리들이 한 건물에서 생활을 한 후로 정보교환이 원활해졌으며 토론과 책을 볼 수도 있었는가하면 라디오도 들은적까지도 있다』고 상기된 얼굴로 회상한다。

6월항쟁소식을 들으면서도 이와같이 현정권을 물복시킬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하고는 『바깥사회에서 그 꿋 생활을 짐작할 수가 없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말하기도。

『요근래 들어와서 대학이 출세나 명예획득을 위한 하나의 과정정도로 전락해버린 것같다』고 지적을 한 뒤 『현재의 노사문제에 대해 분규가 경제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생존권투쟁으로 정치투쟁과 관련이 깊다』고 林군은 말을 잇는다。

이땅의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 투쟁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도 가능할것이라고 말한 林군은 「공화국연방제 통일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주체가 민중들이 될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의 견해를 피력한다。

朴노해씨의 시집을 종아한다는 林군은 요즈음의 민중가요에도 관심이 있다며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애석해 한다。『하루속히 그들 전원이 석방과 수배해제가 되어 사면 복권이 되어야 할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면서도 착잡한 심정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듯 그의 이그러지는 표정에서 아직 벌기만한 참민주화의 도래를 보는듯했다。

그의 떨어져 가는 뭣모습을 보면서 웬지 서운한 느낌이 든것은 웬일일까?

<盧建煥 記者>

인터뷰 정년퇴임 교수와 함께…

"생산과 이용의 조화로 선진적 산업구조 이룩돼야"

權寧大 교수

〈농과대·임학과〉

權寧大교수는 본교 임학과 창설시부터 현재까지 30여년을 재직해온 원로교수。

『무엇보다 주위분들의 협조와 건강이 허락하여 30여년간 무사히 강단에 서온 것에 감사하며 특히 관심을 가지고 기재도입이나 연습지 확장에 힘써 준 학교당국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부터 말문을 연다。

勤勉과 正直을 人生觀으로 반 평생을 교육자로서 살아온 權교수는 지난3日 친지방문차 캐나다에 갔을때 그나라 일학도들의 산림현장학습과정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외국에 비하여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데다가 특히 本校경우 운길산 연습림 (남양주군 와부읍)이 그린벨트지대로 개발이 제한되어 충분한 교육적 활용이 어려우므로 『한일도 없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교단생활을 반성하는 것으로 겸손하게 소감을 대신하는

정책운영 혹은 기업체차원에서 산림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는 한편 『학생들은 시간을 계획성있게 활용하여 실력향상이나 인격수양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한다。

『산림자원의 조성을 먼저 이루고 조성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하나의 확립된 산업수준까지 발전시켜야하며 생산과 이용의 조화를 통한 선진적 산업구조화가 이룩되어야한다』는 신념으로 초창기 임학분야를개척해오면서 농림부 임업시험장 利用課長, 本校農科大學長 등을 역임했는데, 곧 權교수의 학적을 기리기위한 기념논문집이 제자들에 의해 발간될예정이기도。

『늘 결손하시기만해 처세를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돌이켜보니 글복없이 淸廉을 생활화하여 세상을 鶴처럼 사신 현대선비』라는 것이 주위의 評이다。

『이제 고향인 안동에서 계속하여 임산가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며 여생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일어서는 權교수의 老眼에는 아직도 젊은이 못지 않은 학문에의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漢>

鄭慶雲 교수

〈공과대·건축공학과〉

"남은 여생도 건축고문으로 학문탐구에 주력할터"

「자기생활에 충실하라」는 좌우명으로 33년동안 교직에 몸담아온 鄭慶雲 (건축공학과) 敎授는 『의욕같아서는 계속 강단에서서 후학양성에 힘을 쏟고싶다』며 정년퇴임을 매우 서운해 하신다。

54년 당시 함무지와 같았던 건축설계 분야에서 꾸준한 학문탐구의 외길만을 걸어온 鄭교수는 앞으로의 건축설계의 방향은 『하늘의 공간을 더욱 實空間화 하고, 이에따른 공급시설의 발전에 힘입은 21세기 우산 형식의 포대기식 건축이 들어설 것』이라며 자신의 학문으로 말문을 열고 기자와의 대면의 어색함을 지운다。

현시국에 대한 견해와 그 해결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긴듯 두눈을 감았다간,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화길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학생운동과 노사분규등 각계의 상반된 이해관계는 고도성장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서 어느 사회나 겪는 홍역』이라고 자신의 시국관을 투철히 밝힌뒤, 『3천불 정도의 국민총생산이 달성되면 이고비는 수그러들 것이지만 불의 균등한 분배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폭력적 농성은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며 나름대로의 해결책도 제시한다。

본교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캠퍼스의 공간을 일체화시켜 넓은 공간마련에 주력해야하며 특히, 공대의 경우 첨단의 실험기재의 구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공대 재학생의 경우 수리 (數理) 부문에 강도있는 공부가 절실하며 특히 공학도로서 인문과학서적을 탐독,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인간의 생활구조를 편리하게 하기위한 건축설계에 주력해야한다』고 당부하기도 한 鄭교수。

「건강한 신체에만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건강론을 펴는 그는 『절제된 생활과 가벼운 아침운동이 건강의 비결』이라며 흐뭇한 웃음을짓는다。

『앞으로 남은 여력을 다하여 건축고문으로서학문탐구에 몰두하겠다』며 말을 맺는다。 <仙>

柳日永 교수

〈공과대·화학공학과〉

"착실한 실력배양으로 현상황의 난점을 극복해야"

『20년근속을 1년여 앞둔 지금 퇴임이라는 단어는 또한번의 정거장을 지나가는 기차처럼 종착역이 다가옴을 실감케한다』며 아쉬운듯 소감을 말하는 柳日永 (화공과) 교수。

68년부터 本校에 재직한 柳교수는 10여년전 지병이던 당뇨병이 악화되어 강의를 하는 것이 부리라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의 정열적인 강의모습으로 주위사람들을 경외케했던 일화의 주인공。

『교단을 떠나는 지금 학생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특히 공대의 경우 타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교당국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최신기계가 부재한 탓으로 학술·실습활동이 부진할수밖에 없다는 여건입니다。착실한 실력배양으로 이 난점을 극복해 학교측의 성의있는 배려를 기대함이 순서일 직합니다』라고 학생들의 학구에 찬 대학생활을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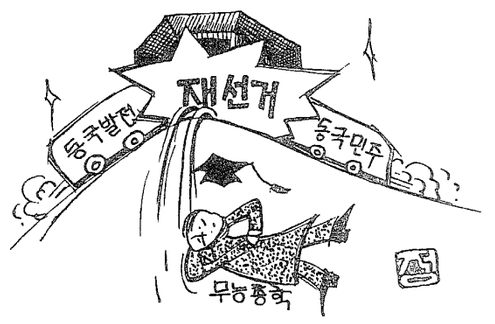
재직중 인상적인 일로써 지난 80년 4·19기념 강연차 내교했던 金大中씨가 한달 뒤인 5·17광주 민중 항쟁 관계로 인해 법정에 섰던 일을 떠올리며 급변하는 시대상의 한 단면을 느끼는듯 쓴웃음을 짓는다。

『또한 가장 보람있는 일은 졸업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것이며 졸업후 각 방면에서 빛을 발하는 제자가 찾아올때는 대견스럽게 여겨진다』며 감회에 젖는 柳교수는 지금 학생들이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사회진출 후에도 절실한 자기도야의 뿌리임을 지적한다。

「양심껏 살자」는 생활신조를 지닌 柳교수는 학생운동이 현시점에서 불가피하다는 論을 펴면서, 지금 일련의 민주화조치로 밝은 사회가 다가오길 기대하지만 권력자들이 선거후에도 지속적인 방안 제시가 있겠느냐는 一抹놓기를 주저치 않는다。

71년부터 3년간 과학관을 역임한바있는 柳교수는 『시력이 저하되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이제부터의 생활은 장성한 아들과 손자들속에 조금은여유있는 생활을 하고싶다』는 말을 맺으며 안경너머 바라보는 창밖은 아직 해가 솟아있는 밝은 한 낮이었다。 <逸>

東國漫評



◇因果應報조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1 2 3
4 5 6
7 8 9
* 0 #

아무리 급해도
버튼을 한꺼번에 누를 수는 없읍니다.
정확한 순서에 따라
버튼을 차근차근 눌렀을 때,
비로소 원하는 한 통화의 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초와 질서를 무시한 채
과정보다는 결과를
알맹이보다는 모양을 앞세우며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는
새치기, 줄속, 날림 등의 풍조들—
그것은 언제부턴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 바빠진
우리네 생활풍토 때문이기도 합니다.

쌍용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모양보다는 알맹이를 생각하며
결코 서두르는 일 없이
기업의 정도를 걸어 갈 것입니다.

SSANG YONG 쌍용

6月 학생활동 평가

하나되어 외친 "독재타도 호헌철폐"

연일 집회·시위…학사일정 거부투쟁도

곳곳서 지도부 限界 극명하게 드러내

「6월 민주항쟁」「6월 명예혁명」등으로 불리는 지난 6월의 일련의 상황은 직권여당으로부터 「6·29선언」을 이끌어 냈다。이는 80년이후 고양된 민주화 운동의 지난한 산고의 소산이며 민중의 과감한 자기권리획득을 위한 투쟁의 성과물이다。

그러나 이번 6·29선언의 본질은 직선제 개헌 주민만을 외치던 직권세력이 민중의 힘에 의한 자신들의 해체모니 상실을 열려한 나머지 민중의 폭여온르는 민주화 열기를 개량화시켜 6월의 위기상황을 일단은 벗어나 보겠다는 뜻에서 취해진 것이라 하겠다。

이런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낸 원인으로 민주화 운동의 한 essential 대학가의 희생적이고 지속적인 선도투쟁이 커다란 기폭제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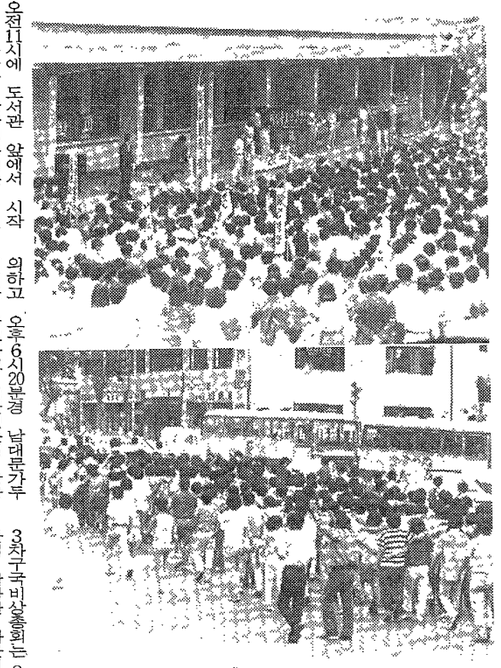
본교의 학생활동 또한 지난 6월의 민주항쟁당시 거의 연일 이어지는 집회·시위·가투등으로 그 선도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

本校의 6월 활동상황을 정리해 보면 먼저 4·13호헌조치의 발표 이후 계속된 호헌철폐투쟁은 5·17을 전후로 호헌철폐 민주쟁취를 위한 단식투쟁、17개 학과의 동맹휴업결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6·10박종철열인고문 규탄대회를 맞이하지만 학기초부터 계속되어 온 지도부의 다원성、즉 학내 민주화를 주장하는 총학과 이에 맞선 단대 연합회등 여타 학생자치기구의 결속·운동진영내에서의 종파성은 당일대회를 맞아 각자 따로 출정식、철야농성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6·10대회이후 명동성당서의 투쟁하는 시민과 학생을 특히 본교 학생들의 소식이 날마다 신문、대자보、보고대회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캠퍼스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분위기는 2학년 男학생들의 전방입소훈련인 15일、총학생회 정·부회장의 부재로 회의에 의거、총대의원회 의장인 신남선(법학4)군이 발표한 구국비상학생총회에 그 동안 분열상은 통합된 모습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故박종철 살인고문규탄국민대회, 최루탄추방대회, 민주헌법쟁취국민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진 6월。본교의 학생활동 또한 활기를 띠었다。

오전11시에 도서관 앞에서 시작된 제1차구국비상학생총회는 3천여명의 학생이 참여、여타의 댄충적집회의 참석인원을 훨씬 능가한 것이다。

1차총회서는 평동성당의 긴박한 상황등이 자세히 알려지고 연행학생석방을 위한 투쟁및 6·10대회 경과보고등을 가졌다。1차총회는 오후3시에 2차구국비상 총회를 갖기로 하고 학생들의 안건을 채택、시령연기、전방입소、총학정부회장탄핵등을 단대및 과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총의를 모으기로 결정하고 각 단대별로 해산했다。

이어 시작된 2차총회에서는 단대별 의견을 결집하여 시험1주연기、총학탄핵、전방입소거부등을 건의하고 오후6시20부경 남대문가두시위를 공고하고 해산했는데 상당수의 학생이 남대문과 명동일대에서 학과및 또는 소단위로 가두에 나섰다。이날 전방입소거부결의로 대상인원 1천1백90명중 33·5%인 3백55명이 입소하지 않았는데 이 날 학군단과 학교측은 국립극장에 차를 주차하고 학생들에게 입소를 종용、상당수의 입소학생이 입소하기도 했다。

한편、이날 전방에 입소하지않은 학생및 가두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중 50여명은 학생총회를 모여 농성을 통해 의견을 수렴、총의를 모으기로 결정하고 각 단대별로 해산했다。

이어 시작된 2차총회에서는 단대별 의견을 결집하여 시험1주연기、총학탄핵、전방입소거부등을 건의하고 오후3시에 2차구국비상 총회를 갖기로 하고 학생들의 안건을 채택、시험연기、전방입소、총학정부회장탄핵등을 단대및 과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총의를 모으기로 결정하고 각 단대별로 해산했다。

15·16일 양일간의 3차례의 학생총회에서 고양된 대중적 의사결집에 기반한 정치집회는 18일 최루탄추방대회를 맞아 후문돌파를 통한 3차구국비상총회를 갖기로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비판하고 전날의 가두로 연행된 학우 30여명에 대한 보고및 철야농성과、각대학의 집회상황보고、정치토론회등을 가졌다。

22일 오전10시에는 本校예비역학생 1천여명이 예비군 훈련을 전면거부하고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비상회의」를 도서관 앞에서 갖고 종문에서 후문으로 몰려오는 가투시위를 벌이고 재차 대학교정에서 총력투로진출을 기도했으나 매복한 사복경찰에 15명이 연행되자、학생들은 도서관앞에 재집결하여 연행학생 1천여명이 석방될 때까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한편、학교당국은 의대및 병원건립기금조성을 다각도로 걸토중인데 시설도입등의 문제가있어 차관도입도 고려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1차구국비상학생총회는 3천여명의 학생이 참여、여타의 댄충적집회의 참석인원을 훨씬 능가한 것이다。

1차총회서는 평동성당의 긴박한 상황등이 자세히 알려지고 연행학생석방을 위한 투쟁및 6·10대회 경과보고등을 가졌다。1차총회는 오후3시에 2차구국비상 총회를 갖기로 하고 학생들의 안건을 채택、시령연기、전방입소、총학정부회장탄핵등을 단대및 과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총의를 모으기로 결정하고 각 단대별로 해산했다。

이어 시작된 2차총회에서는 단대별 의견을 결집하여 시험1주연기、총학탄핵、전방입소거부등을 건의하고 오후6시20부경 남대문가두시위를 공고하고 해산했는데 상당수의 학생이 남대문과 명동일대에서 학과및 또는 소단위로 가두에 나섰다。이날 전방입소거부결의로 대상인원 1천1백90명중 33·5%인 3백55명이 입소하지 않았는데 이 날 학군단과 학교측은 국립극장에 차를 주차하고 학생들에게 입소를 종용、상당수의 입소학생이 입소하기도 했다。

한편、이날 전방에 입소하지않은 학생및 가두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중 50여명은 학생총회를 모여 농성을 통해 의견을 수렴、총의를 모으기로 결정하고 각 단대별로 해산했다。

15·16일 양일간의 3차례의 학생총회에서 고양된 대중적 의사결집에 기반한 정치집회는 18일 최루탄추방대회를 맞아 후문돌파를 통한 3차구국비상총회를 갖기로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비판하고 전날의 가두로 연행된 학우 30여명에 대한 보고및 철야농성과、각대학의 집회상황보고、정치토론회등을 가졌다。

22일 오전10시에는 本校예비역학생 1천여명이 예비군 훈련을 전면거부하고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비상회의」를 도서관 앞에서 갖고 종문에서 후문으로 몰려오는 가투시위를 벌이고 재차 대학교정에서 총력투로진출을 기도했으나 매복한 사복경찰에 15명이 연행되자、학생들은 도서관앞에 재집결하여 연행학생 1천여명이 석방될 때까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한편、本校데모대열의 투쟁하는 시민과 학생을 특히 본교 학생들의 소식이 날마다 신문、대자보、보고대회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캠퍼스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분위기는 2학년 男학생들의 전방입소훈련인 15일、총학생회 정·부회장의 부재로 회의에 의거、총대의원회 의장인 신남선(법학4)군이 발표한 구국비상학생총회에 그 동안 분열상은 통합된 모습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6·29선언의 본질은 직선제 개헌 주민만을 외치던 직권세력이 민중의 힘에 의한 자신들의 해체모니 상실을 열려한 나머지 민중의 폭여온르는 민주화 열기를 개량화시켜 6월의 위기상황을 일단은 벗어나 보겠다는 뜻에서 취해진 것이라 하겠다。

이런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낸 원인으로 민주화 운동의 한 essential 대학가의 희생적이고 지속적인 선도투쟁이 커다란 기폭제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교의 학생활동 또한 지난 6월의 민주항쟁당시 거의 연일 이어지는 집회·시위·가투등으로 그 선도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

本校의 6월 활동상황을 정리해 보면 먼저 4·13호헌조치의 발표 이후 계속된 호헌철폐투쟁은 5·17을 전후로 호헌철폐 민주쟁취를 위한 단식투쟁、17개 학과의 동맹휴업결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6·10박종철열인고문 규탄대회를 맞이하지만 학기초부터 계속되어 온 지도부의 다원성、즉 학내 민주화를 주장하는 총학과 이에 맞선 단대 연합회등 여타 학생자치기구의 결속·운동진영내에서의 종파성은 당일대회를 맞아 각자 따로 출정식、철야농성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6·10대회이후 명동성당서의 투쟁하는 시민과 학생을 특히 본교 학생들의 소식이 날마다 신문、대자보、보고대회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캠퍼스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분위기는 2학년 男학생들의 전방입소훈련인 15일、총학생회 정·부회장의 부재로 회의에 의거、총대의원회 의장인 신남선(법학4)군이 발표한 구국비상학생총회에 그 동안 분열상은 통합된 모습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6·29선언의 본질은 직선제 개헌 주민만을 외치던 직권세력이 민중의 힘에 의한 자신들의 해체모니 상실을 열려한 나머지 민중의 폭여온르는 민주화 열기를 개량화시켜 6월의 위기상황을 일단은 벗어나 보겠다는 뜻에서 취해진 것이라 하겠다。

이런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낸 원인으로 민주화 운동의 한 essential 대학가의 희생적이고 지속적인 선도투쟁이 커다란 기폭제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교의 학생활동 또한 지난 6월의 민주항쟁당시 거의 연일 이어지는 집회·시위·가투등으로 그 선도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

本校의 6월 활동상황을 정리해 보면 먼저 4·13호헌조치의 발표 이후 계속된 호헌철폐투쟁은 5·17을 전후로 호헌철폐 민주쟁취를 위한 단식투쟁、17개 학과의 동맹휴업결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6·10박종철열인고문 규탄대회를 맞이하지만 학기초부터 계속되어 온 지도부의 다원성、즉 학내 민주화를 주장하는 총학과 이에 맞선 단대 연합회등 여타 학생자치기구의 결속·운동진영내에서의 종파성은 당일대회를 맞아 각자 따로 출정식、철야농성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6·10대회이후 명동성당서의 투쟁하는 시민과 학생을 특히 본교 학생들의 소식이 날마다 신문、대자보、보고대회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캠퍼스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분위기는 2학년 男학생들의 전방입소훈련인 15일、총학생회 정·부회장의 부재로 회의에 의거、총대의원회 의장인 신남선(법학4)군이 발표한 구국비상학생총회에 그 동안 분열상은 통합된 모습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6·29선언의 본질은 직선제 개헌 주민만을 외치던 직권세력이 민중의 힘에 의한 자신들의 해체모니 상실을 열려한 나머지 민중의 폭여온르는 민주화 열기를 개량화시켜 6월의 위기상황을 일단은 벗어나 보겠다는 뜻에서 취해진 것이라 하겠다。

이런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낸 원인으로 민주화 운동의 한 essential 대학가의 희생적이고 지속적인 선도투쟁이 커다란 기폭제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교의 학생활동 또한 지난 6월의 민주항쟁당시 거의 연일 이어지는 집회·시위·가투등으로 그 선도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

本校의 6월 활동상황을 정리해 보면 먼저 4·13호헌조치의 발표 이후 계속된 호헌철폐투쟁은 5·17을 전후로 호헌철폐 민주쟁취를 위한 단식투쟁、17개 학과의 동맹휴업결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6·10박종철열인고문 규탄대회를 맞이하지만 학기초부터 계속되어 온 지도부의 다원성、즉 학내 민주화를 주장하는 총학과 이에 맞선 단대 연합회등 여타 학생자치기구의 결속·운동진영내에서의 종파성은 당일대회를 맞아 각자 따로 출정식、철야농성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6·10대회이후 명동성당서의 투쟁하는 시민과 학생을 특히 본교

대동단결 및 투쟁의식 확산은 고무적

〈林秀炫記者〉

압구정 캠퍼스 "독재타도" 외쳐

각각 白虎旗·大學선수권대회서 기염

「스타군단」「미사일 타선」으로 불리는 본교 야구부가 아마야구의 최고봉인 백호기 대회의 패권을 차지했다。

本校야구부는 지난 6월 3일 동대문구장에서 폐막된 「제37회 백호기 종합야구선수권대회」최종일 결승전서 부산산업대를 맞아 이광철(회계3)군이 8회까지 삼진 11개를 잡으며 4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고 팽팽한 투수전끝에 2-1로 대학선수권대회」서 자유형 100kg급 ▲최종석(국어교1)=52kg급 ▲최승우(체육교2)=82kg급 ▲김준호(국어교2)=90kg급 ▲정문경(경행4)=100kg급 ▲신상우(체교1)=57kg급 ▲김태현(국어교3)=62kg급 ▲김광수(경행3)=74kg급 ▲김정욱(경행3)=82kg급 ▲윤찬영(국어교2)=90kg급 ▲정문경(경행4)=100kg급 ▲최종석(국어교1)=52kg급 ▲주욱(체교2)=57kg급 ▲김문부(경행1)=74kg급

이어서 본교 야구부는 83년 춘계리그 우승、84년 대통령기 우승、85년 춘계리그 우승、86년 대통령기 우승、87년 백호기 우승과 함께 87년 백호기 우승으로 전무구대회에서 5년연속우승의 쾌거를 이룩했다。

한편 本校테니스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88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에 자유형 10개체급중 6개체급을 석권하는등 출전선수 전원이 입상하여 단체전 종합 우승을 차지、이 대회 2연패를 이룩했다。

◇우승(자유형)

▲신상우(체교1)=57kg급 ▲김태현(국어교3)=62kg급 ▲김광수(경행3)=74kg급 ▲김정욱(경행3)=82kg급 ▲윤찬영(국어교2)=90kg급 ▲정문경(경행4)=100kg급 ▲최종석(국어교1)=52kg급 ▲주욱(체교2)=57kg급 ▲김문부(경행1)=74kg급

醫大病院부지 확정

89년12월 완공예정

「의과대학및 부속병원」부지가 변경 확정、현재 설계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지는 지난해 9월경우 한발병원외 테니스장 주변으로 확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경우 캠퍼스 정문앞 야산(경주시 석장동 54-1·54-18일대)으로 변경한것으로 대지면적 4만 3천평에 병상 5천백평(의대4층 건물:건평 1천5백평)의 7층건물로 기타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 의대및 부속병원의 설계는 계획·기본·본설계의 3단계를 거쳐 9월말(병원11월말)경에 완성될 예정이며、건립기금 2백억원을 들여 금년중에 착공에 들어가 89년12월까지 완공、90년3월 개원(의대 88년7월완공·88년9월개관)예정이다。

한편、학교당국은 의대및 병원건립기금조성을 다각도로 걸토중인데 시설도입등의 문제가있어 차관도입도 고려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의예과 12일간 농성

醫大건물 설립등 요구

慶州캠퍼스 의예과 학생 1백12명은 지난 6월1일부터 병원및 의대건물 마스터플랜제시·의대건물설립、실투자 편담요구、실험실습보장、재단측 각성등의 5개항을 요구하며 양일동안의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함으로써 12일간의 교내시위및 본부총장실을 점거하는등 농성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예과2학년이 본과1학년이되는 88학년도부터 필요한 해부학등 실험실습및 교수와 연구진등의 실험실 및 의대건물 마련을 포함한 9개과목의 실습을 비롯한 병원및 의대건물 부족을 비롯、대전캠퍼스 설립계획이 확실히 제시되지않자 일어났다。

이와관련、7월초 李鶴冠총장과 閔丙大부총장이 동석한 가운데 의예과출과 이루어진 면담에서 『88학년도에는 의대건물및 병원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곧 단계적으로 88학년도에는 의대건물의 완공、90학년도 2월까지는 병원및 본과1학년을 위한 실험실습이 완공될것이다。88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었으나 學生여러분、이번 학기도 내내 精進하십시요。

우리 함번 밀어보자구요

○…학원민주화에 발맞춘 일부 교수님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몇몇 학생들 사이엔 실로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돌고있다고。

소문인 즉、그동안 학원민주화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어왔던 평교수협의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눈총(?)을 의식한듯 몇몇 교수님들이 야합(?)하는 식의 구성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민주를 사랑하는 東大人이여!

이번 시위는 예과2학년 학생들의 소식이 날마다 신문、대자보、보고대회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캠퍼스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분위기는 2학년 男학생들의 전방입소훈련인 15일、총학생회 정·부회장의 부재로 회의에 의거、총대의원회 의장인 신남선(법학4)군이 발표한 구국비상학생총회에 그 동안 분열상은 통합된 모습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6·29선언의 본질은 직선제 개헌 주민만을 외치던 직권세력이 민중의 힘에 의한 자신들의 해체모니 상실을 열려한 나머지 민중의 폭여온르는 민주화 열기를 개량화시켜 6월의 위기상황을 일단은 벗어나 보겠다는 뜻에서 취해진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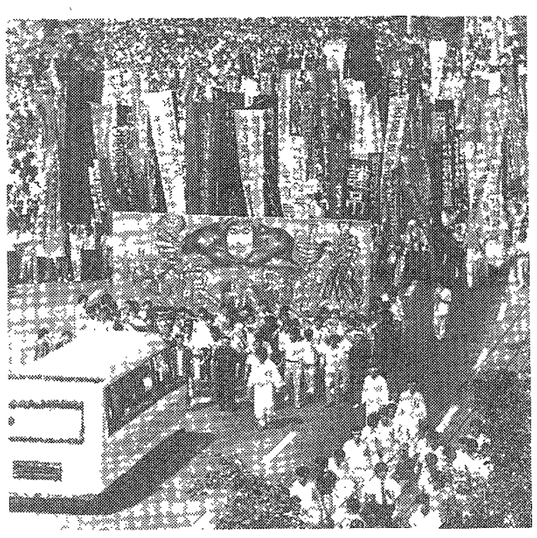
이런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낸 원인으로 민주화 운동의 한 essential 대학가의 희생적이고 지속적인 선도투쟁이 커다란 기폭제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교의 학생활동 또한 지난 6월의 민주항쟁당시 거의 연일 이어지는 집회·시위·가투등으로 그 선도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

本校의 6월 활동상황을 정리해 보면 먼저 4·13호헌조치의 발표 이후 계속된 호헌철폐투쟁은 5·17을 전후로 호헌철폐 민주쟁취를 위한 단식투쟁、17개 학과의 동맹휴업결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6·10박종철열인고문 규탄대회를 맞이하지만 학기초부터 계속되어 온 지도부의 다원성、즉 학내 민주화를 주장하는 총학과 이에 맞선 단대 연합회등 여타 학생자치기구의 결속·운동진영내에서의 종파성은 당일대회를 맞아 각자 따로 출정식、철야농성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6·10대회이후 명동성당서의 투쟁하는 시민과 학생을 특히 본교



『못간다。오래 못간다。사람을 그렇게 죽여 눕고 독재는 오래 못간다』 삿情은 오열한다。잃어버린 자유의 외침이 그리움의 두줄기 눈물로 흐를줄은·최루탄의 분말을 비로 씻어내려는듯 비는 그토록 내렸고 그 비는 만민의 슬픔이었는지。반동의 무리에게 돌을 던질수 있었던 그 긍지만은…。

<글=김 영석記者·사진=유 경진記者>

카메라 단상

회전무대

이제는 개강

○…이번 개강號(970號·8月25日字)에는 예년의 두어배에 해당하는 분량의 記事가 폭주、어느 것을 싣고 어느 것을 빼야 할지 本 회전무대주 내내 苦心。

6월 민주화 투쟁、19대총학생회 탄핵및 보궐선거、체육부 활동、독일大學과의 자매결연 체결、학원민주화및 동국발전을 위한 간담회、경주의여과농성등 굵직굵직한 記事를 위시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학내외의 記事가 무척 많건만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아울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말도많고 문제도 많았던 여름방학도지 23일로써 마감되고 바야흐로 이젠 2학기가 시작되었으니 學兄여러분、이번 학기도 내내 精進하십시요。

우리 함번 밀어보자구요

○…학원민주화에 발맞춘 일부 교수님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몇몇 학생들 사이엔 실로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돌고있다고。

소문인 즉、그동안 학원민주화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어왔던 평교수협의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눈총(?)을 의식한듯 몇몇 교수님들이 야합(?)하는 식의 구성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민주를 사랑하는 東大人이여!

「말」많고 「문제」많았던 여름은 끝나고…

드높인 東國人의 긍지

○…하늘에 구멍이 뚫린듯 연수로 쏟아지던 비에 전국이 수해로 수심에 잠겨있는 가운데서도 東國人의 따뜻한 인정의 손길이 줄을 이어 본관으로 하여금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고。

내몽일록、本校수해복구단 1백80여명과 경주캠퍼스 학의과대교수·학생 1백20여명이 촉답 경북 수해지역에서 복구작업및 의료봉사활동을 벌여 다시한번 東國人의 긍지가 높이 돋보이게한 것이 그것인데。한편 이번 수해복구를 다녀온 某學兄은 『예로부터 治山治水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 그시대 그 나라를 평가했다』며 『안부래도 현정권은 문제가 많은가 보다』고 一쇠。

開校81周年

미륵을 기다리는 마음

總 1244쪽 값 : 30,000원

一千江에 고루 비치는 달빛과도 같이 佛陀의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東이나 西나 걸림이 없읍니다.
現世 無明으로
예서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오늘.
실낱 같은 빛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깨침으로 가는
길의 里程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찾아 나선 이들을 위해 미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東國에서 '佛敎와 諸科學'이란 이 한 권의 책을 내놓습니다.

筆陣 權允赫 金文煥 金泳宗 金容雲 金鎔貞 金鎭敏 川田洋一 徐景洙 宋錫球 宋在雲 薮内清 元義範 李符永 鄭址鎬 趙慶哲 韓相範 洪起三 黃山德 金思燁 高宰錫 金煐泰 金仁德 鎌田武雄 中村元 田村圓澄 文明大 閔泳珪 牧田諦亮 朴先榮 朴昌魯 Fritz Buri 楊白衣 吳國根 李圭泰 橫超慧日 Achok Rinpoche 鄭永鎬 鄭泰爀 Ven Jampa 千惠鳳 Helmut Girndt 姜晉哲 高柄翊 金元龍 朴性鳳 申國柱 李光麟 李基東 李基白 李龍範 李佑成 李學智 井上秀雄 張漢基 全海宗 丁仲煥 Chong-Hwan CHU 陳捷先 韓永愚 黃壽永 旗田巍 Hubert DURT

미륵보살반가상(국보83호)

'佛敎와 諸科學'은 불교 인접학문의 연구와 불교연구의 세계성을 위해 국내외 석학 예순 한분의 논문을 모은 책입니다.

東國大學校

여로 ⑭

오 황

<40>

산업재해방지론

金禧經 編著

재책안내

金禧經(본교행정대학원 강사) 교수가 하인리히의 名著인 「산업재해방지론」을 중심으로 발췌, 편역한 이 책에는 산업안전관리자들이 실무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적용시킬수 있도록 산업재해방지의 원칙과 기본원리, 산업안전계획과 방법이 잘 기술되어 있다.

<경진사刊·410面·7천원>

열린사회 1

윤석진 외著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부정기간행물「열린사회」는 이 땅의 소외받는 사람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1권「빼앗길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민가협 사람들의 탐방기사, 건대사태의 자료들과 증언, 도시빈민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다.

<열린책들刊·448面·3천8백원>

대사기 : 어느 반공주의자의 고백

R.W.맥게이 著

CIA공작요원으로 동남아등지에서 활동했던 저자 맥게이는 이 글을 통해 베트남 상황에 대한 CIA의 기만첩보로 인한 베트남전쟁의 허구와 비효율적인 조직관리, 무분별한 해외공작을 수행하는 CIA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

<학민사刊·170面·2천2백원>

양심수 어머니의 붓

양심수 석방 문제는 민주화 실천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된다. 그것은 양심수란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부터 풀어 나가야한다.

분단 42년 군부독재 25년 이라는 역사의 흐름에서 민중은 제도적, 구조적으로, 또 체질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권리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해왔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독재의 장기집권은 수많은 민중을 억압했고 제5공화국 출범도, 광주 민주항쟁을 통해 야만적으로 탈취한 전형적 반민주 정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재의 모순성과 비리 또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그 작태는 선량한 우리 민중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恨과 痛痛과 저주와 울분과 드디어는 분노의 저항을 자생하게 하였다。

사법부는 권력의 공모자가 되어 의로운 사람일수록 혹독한 탄압과 공정성이 상실된 자의적인 재판으로「관제용공」「좌경분자」로 양산해왔다。양심수들은 재판과정에서 한결같이 성토한다。

『우리가 여기 법정에 선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현 독재정권을 재판하기 위해 이곳에 섰노라』고 당위성을 주장한다。또 그들 양심수는 우리의 정당성은 민중으로 하여금 분명히 판단될 것이며 독재는 완전히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재체제를 부정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암흑 속에서 몸부림치며 뼈가 부서지도록 공헌한 민주투사, 바로 그들이 양심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각 분야에서 빼앗긴 민중의 환권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학원에서, 혹은 사회에서 희생 봉사한 민주화의 밑거름들, 그들은 용공 좌경으로 날조되어 숱한 고문을 당하며 투옥되었음을 국민은 명백히 알고 있다。양심수가 지니는 의미 또한 민중의 간절한 여망인 민주화의 쟁취와 정착을 위한 헌신이며 민주화 투쟁의 전위의 위대함을 스스로 행한 사자였음을 의미한다。양심수란 중언이 필요없는 이 나라의 민주투사임이 입증되었다。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독재정권의 반민주적 제행태를 통감하여 일어선 투사가 바로 양심수일진대 그들의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민주화 조치의 제1호가 아니고 무엇이랴。그러나 독재정권은 아직도 양심수 석방을 소극적이고 온갖 권모술수책으로 선별석방등의 망언을 하며 진정한 민주인사의 석방을 차단하고 있다。뿐만 아니라「6·29 노태우선언」은 국민의 폭발적인 항거에 일시 대처한 초라한 변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의 전환이나 참회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듯이 여당 총재는 6.29선언 후에도 전후 일관성없는 독재의 본질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선별 석방의 기준도 6.29이전의 논리와 대동 소이하며 선별 주체 또한 천인공노할 독재의 시녀 공안 판검사에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등, 권력의 횡포는 양심수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울분을 자아내고 있는지 독재집단은 알고 있는가!

민주화는 말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실천적 투쟁의 결실임을 자각하고 적극투쟁에 참여함은 물론, 목적을 확고히 재다짐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화는 어떤 것이여야 하는가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보자 그것은 이 땅의민중으로서 절실한 과제이며 이 땅의 어머니로서의 거룩한 참희이며 투옥된 양심수들의 민주투지에 가장 값진 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 제단에 바친 아들 딸들의 자랑스런 민족 정기는 눈물이 바다되어 흐느낀 어머니들의 아픔 고통의 恨을 민주화의 역량으로 결집 승화시켜 기필코 장한 아들 딸들의 정당한 목적과 지표가 뿌리내릴 때까지 과감한 연대의 힘으로 싸워나갈 것을다짐하게 된다。그리하여 누가 좌경집단이며 누가 반국가 단체이며 누가 반민주자인가에 대한 심판을 역사적으로 전시되게 함이다。

노출재의 17일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한 언급에서도 역시 한계성을 읽어 볼수 있다。실로통탄할 일이다。민주발전은 누가 가로막고 독재를 하였는데 아직도 된다 안된다는 정치집정을 하고 있는가。집권 연장의 방법도 여러가지 구실로 끌어 오고있지만 백일하에 드러난 저들 독재집단의 전술을 누가 모르랴, 4·13 호헌 하자던 그들이 언제부터민주화에 참여 의식을 가졌던가 매양 민주적 성향을 위배하는 자들이 민주화를 어떻게 한다는것인지도 애매하지만, 물러가지 않는 그들은 결국 준엄한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임도 확실하다。

우리 양심수 어머니들은 더욱 더 뭉쳐서 진정한 민주화 실천대열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민주화를 맺자 적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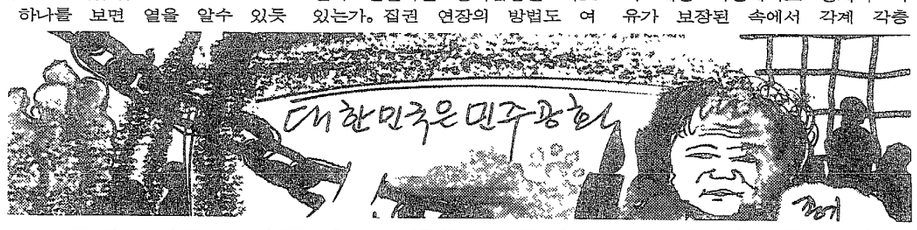
첫째로 군사독재정권은 물러가야 한다。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독재 본질성의문제이며 그 본질성은 특권성, 폭력성, 예속성으로 지배특권층으로 민중을 지배 억압하여, 민중을기만하는등 반 민중적 세력집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둘째로 독재정권과의 타협은 진정한 민주화 실현의 장애요인이다。그 이유는 타협의 성격, 의미 한계를 입증함으로써 풀이가 된다。독재가민중투쟁을 무마시키고 궁지에 몰렸던 열세를 만회해서 정권 연장을 기도, 위기 상황에서 다소의 양보를 야당인 민주당과 합법적 타협협상의 격식을 갖추게 된것이 그 성격과 의미라 하겠다。

타협의 한계 또한 민중의 참여를 배제한 독재하에서의 타협이므로 그들의 본질을 넘을수 없는 한계를 생각해야 한다。그러므로 우리는 독재의 완전종식과 타협의 부당성이 증명된 이시점에서 진정한 민주사회의 논리를 정립하자, 민중의 힘으로 민주사회의 기본인 민주헌법을 쟁취하여 제정 과정에서도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속에서 각계 각층의 대표를 선출하여 민중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할수 있는 민주헌법이어야 하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등도 생존권을 보장받고 노동3권 보장등 소외되었던 민중의 광범위한 참여가 아닐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민주화는 성취될수 없다고 단언할수있다。

더불어 모든 악법 철폐가 민중의 권리환원의 원칙임을 강조한다。끝으로 이 땅의 자랑스런 아들, 딸들의 어머니로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양심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들의 무조건적인 ·전원 석방을 진실로 기다리면서 이글을 끝맺는다。

金 鍾 信

<김성식(서울대 경제학과) 君의 어머니>



"그들은 참민주화를 위해 투쟁의 전위로 나선 사자들이다"

「獨立紀念館」 명칭의 합당성?

우리는 지난15일 광복42주년을 맞이하면서 온 겨레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건립된 民族 聖殿의 준공을 지켜 보았다。

지난4315 (1982) 년 일본이 그들의 한반도 침략을 미화한 역사교과서 歪曲사건이 일어나자 全 국민은 그들의 妄動을 규탄했고, 이는 우리민족의 손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분연히 항거한 先烈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치욕의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한 기념관건립 모금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모금운동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모두가 참가해 성금등 9백53억원을들여 공사를 시작, 지난해 8월 뜻하지않은 본관(겨레의집)확재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착공 4년만에 개관을 보게된 것이다。

이렇게 민족자존의 의지를 모아 건립한 기념관이건만 국민들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응어리는 所謂「독립기념관」이라는 석연치않은 명칭이다。

본래 기념관의 명칭은「광복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의 발족에서 알수있는 바와 같이 결코「독립기념관」이 아니었다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독단으로 그 명칭이 결정된것이다。

기념관의 명칭을 논함에있어, 或者는 그 근본정신이나 취지의 중요성만을 앞세우고 명칭의 중요함을 경시할지도 모르겠으나 민족의 의지를 모아 건립한 기념관의 명칭은 韓民族 전체의 얼과 관계가 있기때문에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반만년 역사속에서 일제의 35년11개월간의 강점은 우리의 주권을 일시적으로 강탈당한 것에 불과하며, 한민족은 끈질긴 저항으로 다시 빛을 찾은것 (光復) 이지 결코 獨立된 것은 아니다。

「독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제침략에 대하여 항거의 역사가 강조되는 「광복」과는 달리 예속의 역사가 전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이른바「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은 유구한 독립국의 역사를가진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으로 부터 독립한 신생국인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굴욕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결과가 되어 일본 안들에게 對韓우월감을 갖도록 할 소지가 다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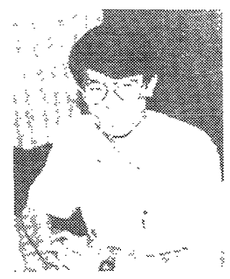
이렇듯 현재의 명칭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정부는 비록 개관이 된 지금이지만 그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독립기념관」이라고 일방적으로 명칭을 결정한 정부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기만 하다는 논리는 성립 될수 없는 것이다。

역사를 교훈삼아 진정한 民主化를 이룩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 가야 한다。소위「독립기념관」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김용태 학술부장>

獨立은 예속의 역사가 前提되는 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제23회 소설문학 신인상 수상자를 만나



임 형 욱 君

文學에서 美的인 것과 美는 구분되어져야하며, 美는 「솔직함」에 있다고 봅니다

『서불지만 내뿜의 하늘을 날으리라』고 당선소감을 밝힌 임형욱(국문·4)君。

詩의 원형질로 생각되는 감성이 확보되어있다는 評을 받으며 「제23회 소설문학 詩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임君의 모습에서 동국문학의 건재함을 확인한다。

이번 소설문학 8월호에「강물소리」外』 4편의 詩로 등단한 임君은 당선을 축하한다는 인사말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듯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혁명가의 거친 목소리가 아닌 現實苦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과정의 목소리가 자신의 詩想에담겨지기를 바란다는 임君은「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60장 1절을 인용하며 시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소명이라는 믿음을 서슴없이 나타냈다。

소설로써 문학과 인연을 맺었던 임君인 까닭에 이번 시등단이 주위에선 변절로 받아들여져 서글프다면서 지금도 자신은 소설가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소설가가 될것임을 확신한다고 의지를 굽히지않았다。

『소설이 삶의 전체를 조명하는데 비해 詩는 일부를 통해 전체의 삶을 표현할수 있는 잇점』이 자신을 소설이 아닌 詩로 등단케 한것 같다며, 아직은 소설을 自意대로 이끌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역량이 부족하다고 겸손해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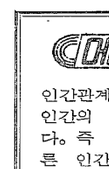
제도나 구조적 모순 뿐만 아니라 도덕적·종교적인 타락에 더욱 촛점을 맞추어「현실의 모순」이라는 십자가를 진 全인류의 고통을 詩에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뒤, 어떤것도 소외시키지 않으며 모든것을 포용하는 새로운 문학풍을 창조하겠다고 의욕을 보인다。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문학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美的인 것과 美는 구분되어야 합니다。문학에 있어서의 美는 고통스러워하는 삶에 있다고 봅니다。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모순의 세계입니다。앞으로 저의 문학은 이러한 현실의 모순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여러가지 삶의 모습들을 그려 낼 것입니다』고 자신의 앞으로 문학주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는 유년에 대한 동경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순간 순간의 아픔을 그리는 작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임君의 굳은 의지에서 내일의 동국문학을 이끌어갈 값진 原石의 빛봄이 멀지않음을 기자는 느낄수 있었다。

<扈>

서로 사랑하기



⚠現代資本主義에 있어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소외된 인간의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즉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관계의 경직과 복잡한 사회구조에 따른 자기보호벽은 現代人으로 하여금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자랑의 무능화」란 새로운 사회질환증세(?)에 시달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하나의 원자로 고립된 개개인은 사상과 감정, 행동등에 있어 他人과의 동질성을 통해 안정감을 회복하려한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여전히 고독한 군중으로 남는 것이다。⚠우리들의 가치체계 역시 변질 된다。資本은 勞動을 강요한다。즉 즉 어있는 축적된 사물들은 勞動 즉 살아있는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우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오늘날 인간의행복은 오로지「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착각 되어진다。상품·구경·음식·음주·끽연 섹스등—이 모든 것을 소비하고 살켜버리는데 만족해 한다。때로는 이같은 증세(?)들이 강제되어지기도 한다。소수부리의 욕구충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첨예화 되면서 인간성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 역시 계속되어 왔다。혁명, 때로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그 투쟁은 가열차게 전개되어 온 것이다。지난 6월이후의 민주화 투쟁이 그 하나일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많은 것을 얻은 반면 소중한 것들도 잃었다。억압과굴레에 우리는 분노했고 분연히 일어섰다。우리는 싸웠으며 마침내는 이기고 말았다。그러나 6월의 어느 宣言이후 승리한 것 같았던 우리들에게 실상 변한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독해 한다。그저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할 동안 某조선소에서는 또 하나의 젊은 생명만이 힘없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뿐이다。⚠기계화된 인간은 사랑을 할 수,없다。순수한 사랑은 그 자신 사랑의 능력에 뿌리를 둔 사랑하는 이의 성장과 행복을 향한 능동적 갈망이며 구체적인 실천이다。우리가 기계이기를 거부한다면 정녕 참된 인간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때가 아니다。자신과 이웃 민중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할때인 것이다。진정한 삶, 인간해방을 위하여。

<勝>

文化短信

「서푼짜리아르바이트」공연

내달23일까지 미리내예술극장서

극단 가교에서는 남정희作 류중렬연출의「서푼짜리아르바이트」공연을 오는 23일까지 미리내예술극장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평일 오후4시반, 7시반 하루 2회공연。

「열쇠와 자물쇠」공연

오는 31일까지 마당세실극장서

극단 마당은 괴테 원작의「열쇠와 자물쇠」공연을 오는 31일까지 마당세실극장서 공연한다。

공연시간은 평일 5시, 7시반토·일요일 오후 4시, 6시반。

「한국사 교실Ⅰ」

10월27일까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에서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역사인식의 대중화를 위한「한국사교실Ⅰ—인물로 본 근현대사」를 내달 8일부터 10월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 역사문제연구소(체신노조회관 502호)에서 개최한다。(문의전화 : 738—2181)

「제15기카운슬러대학」

10월30일까지 사회복지관강당에서

「사랑의—전화」에서는 유능한 카운슬러의 배출을 위한「제15기 카운슬러대학」을 내달14일부터10월30일까지 사회복지관 8층강당에서 개강한다。

시간은 월·수·금 오후1시부터 4시까지。(문의 전화 : 712—8600)

「봉산탈춤 강습회」

10월22일까지 동숭동강당에서

홍사단 서울지부는 27일부터 10월22일까지「제18회 봉산탈춤 실기강습회」를 동숭동강당에서 개최한다。

강좌시간은 매주목요일하오7시。

문화부소식

새학기를맞아 재학생여러분의 참신한 문열림의 노크를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時論 : 15매내외

⚠詩·時調·수필·꽁트·문화비평(10매내외)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